뚤라똘리 TulaToli 마을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로힝야학살보고서

2018. 12.

아디 ASIAN DIGNITY INITIATIVE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ADI는 아시아의 분쟁피해자와 현장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의 인권과 평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되어 인권실태조사와 유엔진정,
피해생존자 심리상담 및 지원, 분·쟁마을 지원사업, 현장활동가 발굴과 성장 프로그램,
아시아 분쟁, 난민 연구조사와 아카이브 사업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길 143번지, 창건빌딩 410호(우)06937
홈페이지: www.adians.net
문의: 02-568-7723 / asiandignity2016@gmail.com
후원: 신한 100-031-396381 아디

캠프14(하킴파라) 내부 모습 / 2018년 8월 8일 방글라데시 © 조진섭

광주인권평화재단 Gwangju Human Rights Peace Foundation
인권재단사람
The Truth Foundation 진실의 힘
한우추모기금
본 프로젝트는 광주인권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진실의 힘, 한우추모기금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Ⅰ. 요약

2017년 8월30일 아침 8시경, 군경은 미얀마 라카인북부 마웅도우에 위치한 뚤라똘리 마을을 공격했다.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무라파라로 진입하며 군경은 총을 난사하고 집을 방화했다. 전날 라카인 마을행정관은 로힝야 주민들에게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도망가지 말고 데져트로 불리는 마을 강변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로힝야 주민들은 데져트로 향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략 1,500~2,000명으로 추정된다. 전날 똘라똘리에서 피신해 있던 이웃마을 와이꽁과 디올똘리의 주민들도 데져트로 모였다.

무라파라로 진입한 군경의 일부는 곧바로 데져트로 향했다. 군경은 모인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접근했다. 놀란 주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지며 어찌할 줄 몰랐다. 일부는 사태를 파악하고 강 건너 와이꽁마을로 헤엄쳐 피신했다. 그러나 강물이 높았던 당시 수영을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주민들은 꼼짝없이 갇혔다. 군경은 주민들에게 총을 쏘며 한 곳으로 몰아 주민들을 포위했다.

이어서 군경은 남성의 등에 총구를 대고 격발했다. 남성들과 분리시켜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웅덩이에 따로 구금했다. 아동들은 강으로 던지거나 총을 쏘거나 또는 칼로 베거나 불에 던져 살해했다. 시신들은 구덩이를 파고 밀어넣은 뒤 가솔린으로 태웠다. 여성들은 5~6명의 그룹별로 소르파라에 위치한 로힝야 민가에 끌려갔다. 군인들은 여성들을 구타하고 강간한 뒤 살해하고 집을 불태웠다. 군경과 동원된 소수민족 민간인들은 로힝야 민가에 남아 있던 식량 등 재산을 전부 몰수해갔고 마을의 로힝야 집들을 전부 불태웠다. 로힝야 민간인들에 대한 이날의 살육은 해질녘까지 지속되었다.

뚤라똘리 마을의 대량학살은 8월 25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주도한 군사작전 중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군대가 명분으로 내세운 테러리스트 토벌작전은 구실에 불과했다. 기초조사를 통해 8월30일 뚤라똘리마을에서 학살된 주민은 최소 380~450명이다. 기초조사의 한계로 인해 결과는 확정적이지 않으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 많은 희생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당시 와이꽁, 디올똘리 등 인근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뚤라똘리에 피신해 있었고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증언에 따르면 뚤라똘리 학살에 직접적 책임은 악명높은 99 라이트 보병사단에 있다. 라카인 마을행정관을 비롯한 주민들과 쿠이족, 므로족, 샤크마족 등도 학살에 적극 가담 또는 조력했다. 뿐만 아니라 군총사령관을 비롯한 군지휘권자들도 뚤라똘리 학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인터뷰를 종합하면 미얀마 군대와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뚤라똘리 로힝야 주민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인근마을과 시장 등에 다니기 위해서는 요금을 지불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가능했고 이를 어길 경우 구타와 구금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야했다. 2016년 10월부터는 마을밖을 나가지 못했다.

결혼도 수수료를 내고 허가증을 받아야 가능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역시나 구타와 최고7년형의 감옥살이 그리고 큰 벌금을 내야 했다. 자녀도 2~3명이상을 낳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서약을 받았고 실제 자녀를 가족등록부에 등재하는 것에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미얀마 정부는 이들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이슬람을 금지했다. 모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기도와 종교행사를 갖는 것도 금지시켰고 이를 어길 때에는 처벌이 따랐다. 로힝야는 1982년 시민권법 제정이후 시민권이 박탈됐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 그러지 못했다.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취약했다. 치료를 위해서는 여행허가를 받아야 했고 치료비를 선불로 지급해야 했다. 로힝야들은 교육에서도 차별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문해율이 지나치게 낮다. 직업선택에 차별을 받았다. 정부는 로힝야 소유의 땅을 몰수하여 라카인에게 배분했다. 생계수단을 빼앗긴 로힝야는 다시 땅을 라카인에게 빌려야 했다.

아디는 미얀마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미얀마 군대와 정부에 의한 뚤라똘리 마을의 로힝야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성역없이 조사를 통해 군통수권자 및 국가자문관인 아웅산 수치 그리고 작전에 동원된 99 라이트 보병사단 및 학살에 조력한 라카인 마을행정관 및 주민, 그리고 인근의 소수민족 민간인들이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학살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아디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견지한 피해자 구제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심리지원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아디는 미얀마 정부가 입법,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여 로힝야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철폐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혐오발언을 처벌하고 대시민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디는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국적확인카드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이들의 시민권 회복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미얀마 정부와 국제사회는 로힝야 송환논의에서 로힝야 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Contents

4 Ⅰ. 요약

8 Ⅱ. 배경

10 Ⅲ. 조사방법
- A. 인터뷰
- B. 기초조사
- C. 한계

11 Ⅳ. 로힝야족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 2012-2016
- A. 교육기회의 박탈
- B. 직업선택의 제약
- C. 허가제 결혼과 출산 제한
- D. 종교의 자유 부인
- E. 이동의 자유의 심각한 제한
- F. 시민권의 박탈
- G. 투표권의 박탈
- H.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제약
- I. 강제노동에의 일상적 노출

17 Ⅴ. 2017 학살
- A. 지리적 배경
- B. 8월30일 이전
- C. 군경의 이웃마을 공격과 이웃주민들의 뚤라똘리로의 피신
- D. 8월30일
- E. 기초조사 결과
- F. 가해자: 99라이트 보병사단

34 Ⅵ. 결론과 권고

36 Ⅶ. 부록

42 Ⅷ. 감사의 말

II. 배경

2017년 8월25일,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 경찰초소 및 군영 30여곳을 습격했다고 알려진 직후 미얀마 군부는 토벌작전을 벌여왔다.[1] 그러나 대테러 작전이라던 미얀마 군부의 대응은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 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으로 드러났고 90만명의 로힝야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 방글라데시로 피난했다.[2]

뚤라똘리 마을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은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온 생존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최초로 알려졌고,[3] 휴먼라이츠워치가 생존피해자 18명을 면접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4] 또 로이터는 뚤라똘리 마을에서 300여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추정했다.[5] 그러나 지금까지 대량학살이 발생한 마을에서 군부가 살해한 사망자 수는 보고된 바 없으며 당시 뚤라똘리 학살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은 공개된 바 없다.

아디는 뚤라똘리 마을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의 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 수집 및 보존을 위해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뚤라똘리 출신 피해자 및 목격자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했고, 다수의 생존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보고서는 향후 로힝야 집단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실현 단계에서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개별 생존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을 녹취와 자술서(affidavit)의 형태로 남기고,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아디의 기록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III.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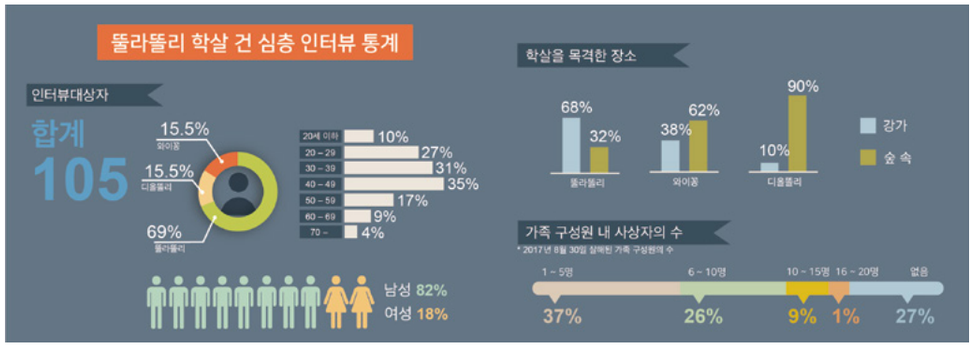
A. 인터뷰

아디는 2017년 10월부터 4개월간 뚤라똘리마을 생존자 20명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초점그룹 인터뷰를 통해 사전조사를 수행했다. 이어서 2018년 2월~4월 그리고 8월~9월, 즉 총 5개월간 똘라똘리 학살 피해 생존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심층 면접조사의 대상은 뚤라똘리마을 출신의 피해생존자 및 목격자 73명과 뚤라똘리의 인근마을인 와이꽁과 두얼똘리 출신의 피해생존자 및 목격자 32명으로 총 105명을 포함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20세 이하 11명(10%), 20대 27명(26%), 30대 32명(31%), 40대 18명(17%), 50대 10명(9%), 60대 4명(4%), 70대 3명(3%)이고, 성별은 남성이 86명(82%), 여성이 19명(18%)이다.

또한 뚤라똘리 출신 인터뷰 대상자 73명 중 49명(68%)은 2017년 8월30일 사건 당일 대량학살이 있던 장소에 일정시간 머물다가 대부분 강을 건너 몸을 숨긴 채 사건을 목격했고 23명(32%)은 가까운 산에서 사건을 목격했다. 와이꽁 마을 출신의 인터뷰 대상자 16명 중 6명(38%) 그리고 디올똘리 마을 출신의 인터뷰 대상자 16명 중 2명(10%)이 사건 당일 대량학살이 있던 장소에 일정시간 머물다가 강을 건넌 후 사건을 목격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까운 산에서 사건을 목격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목격자는 71명(68%)이고 피해생존자는 34명(32%)이다. 피해생존자 중 강간 피해자는 5명(5.8%)이다. 2018년 8월30일 사건당일 살해된 가족구성원 수가 1명~5명인 인터뷰 대상자는 총 105명 중 39명(37%), 6~10명은 27명(26%), 11~15명은 9명(9%), 16~20명은 1명(1%), 살해된 가족구성원이 없는 경우는 29명(27%)의 분포를 나타냈다.



조사자(interviewer)는 아디에 대해 소개하고 인터뷰 목적을 설명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이를 이해하고 그 내용의 활용에 대해 구두와 서면으로 동의했다. 아디는 특히 인터뷰 대상자 중 2018년 8월에 난민캠프에서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04명으로부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받았다.

인터뷰는 크게 세 파트로 이뤄졌다. 조사자는 기초정보, 2012~2016년까지의 차별 경험, 그리고 2017년 사건에 대한 100여개 이상의 질문을 순차적으로 질문했다. 인터뷰는 훈련된 조사자의 주도로 로힝야 언어로 진행됐고, 평균 1시간 30분정도 소요됐다. 강간피해자의 경우 여성 조사자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캠프내 대상자 텐트에서 진행됐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증거로 남기기 위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했다.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를 활용하여 GPS정보도 수집했다. 인터뷰 중 특정사건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가 보유한 영상 및 사진도 수집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피해자의 신변보호차원에서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고 얼굴의 사진도 흐릿하게 처리했다. 다만 사망자의 이름은 실명이다.

B. 기초조사

아디는8월30일 뚤라똘리마을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 수를 파악하고자 기초조사를 시도했다.[6] 첫째, 방글라데시 난민캠프 내 뚤라똘리 마을 출신 주민은 2017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8월30일 사건 당일에 살해당한 희생자 명단을 조사했다. 뚤라똘리마을 출신 주민들은 난민캠프 내에서 서로의 소재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및 가족 내 피해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기초조사는 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둘째, 아디의 조사자 10명은 2018년 3월부터 3개월동안 또다른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캠프1부터 캠프13까지 총 13개 캠프의 588,800명이었다.[7] 조사자들은 방법론상 13개 캠프내 모든 텐트를 개별방문하고 이 중 뚤라똘리마을, 인딘마을, 츄핀마을, 쿠텐꽉마을, 돈백마을의 총5개 마을 출신의 난민가족만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했다. 조사자들은 텐트거주 가족대표에게 출신 마을과 가족, 가족내 피해규모, 사망자 이름 등을 묻고 기록하고 캠프에서 발급한 신분증 앞뒷면을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 특히 신분증 뒷면에는 미얀마 출신 마을이 기재되어 있어 인터뷰 대상자의 출신 마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C. 한계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인터뷰는 사건 발생 후 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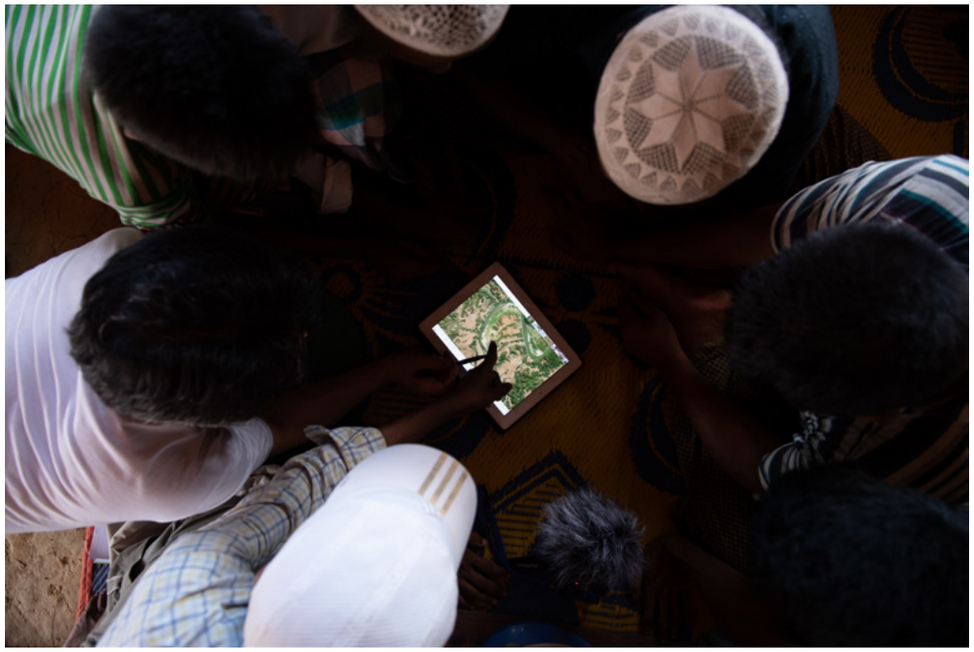
월~1년이 지난 뒤에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진술에 있어서 기억의 왜곡(recall bias)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인터뷰를 진행한 방글라데시 난민캠프 내 텐트는 비밀(privacy)의 보장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텐트 밀집도가 높고 방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강간피해자를 비롯한 인터뷰 대상자는 특정 질문에 대해 심리적 저항감을 느끼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각각의 기초조사는 뚤라똘리 마을 출신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우선, 뚤라똘리마을 주민주도의 기초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미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뚤라똘리 마을 주민들은 기초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의 전수조사를 시도했던 기초조사도 캠프 전체의 모든 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대상이었던 캠프1부터 캠프13을 제외한 캠프14, 캠프15, 캠프16 그리고 테크나프 지역내 난민, 즉 115,800명 이상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한계가 있다.[8]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을 지라도 방문기초조사에서 누락된 뚤라똘리 가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방문 당시 가족원이 텐트에 부재한 경우 재방문을 통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넷째, 두 번의 기초조사는 학살 당일 뚤라똘리 마을에 피신해 있던 와이꽁, 디올똘리, 가라토르빌 마을주민들도 배제한 한계가 있다. 피신하고 있던 이웃마을 주민들의 규모와 학살 당일의 희생자 규모과 상황은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들은 생존 피해 가족의 증언에 기초한 집계로서 미얀마 당국의 공식적 입장 및 현장증거수집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뚤라똘리 생존자들과의 초점그룹 토론 모습 © 조진섭

IV. 로힝야족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 2012-2016

A. 교육의 기회 박탈

뚤라똘리 마을 로힝야족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 뚤라똘리 마을 인터뷰 대상자 73명 중 57명(78%)은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정규 초등교육을 받다가 중도포기한 인터뷰 대상자는 11명(15%)에 불과했다. 오로지 4명(5%)만이 12학년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뚤라똘리 마을의 로힝야 학생들이 정규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중도에 탈락한 이유는 정부에 의한 이동제한(curfew) 그리고 가난 때문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이동을 제한하고 2년간 학교를 폐쇄해서 저는 4학년 이후로는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학교로 돌아 가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여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9]

> "저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카인들이 '입학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저희 가족은 이를 감당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10]

또 로힝야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차별받았다. 교사는 로힝야 학생과 라카인 학생을 교실에서 구분하여 자리배치하고[11] 라카인 학생에게는 정규수업을 충실하게 진행한 반면 로힝야 학생들과는 수업을 축소하거나 방치했다.[12] 교과서 지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로힝야 학생도 있었다.[13] 또 교사는 학생간 다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라카인 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로힝야 학생만 처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14] 로힝야 학생들은 로힝야 언어로 수업을 받지 못했다. 라카인 또는 버마어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실제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다.[15]

이슬람 종교 교육도 제약이 많았다. 미얀마 정부는 모스크, 목탑, 마드라사 등 이슬람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교육을 금지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교사를 체포하고 가뒀다.[16] 마을 행정관은 5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슬람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17] 군인이 오는지 망을 세워두고 수업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18]

> "그들이 모스크와 목탑, 마드라사를 폐쇄한 이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스크를 이용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목탑을 사용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교사들 중 한명은 사둘 아호메드(50)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를 고문했으며, 그는 10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19]

B. 직업선택의 제약

정부는 뚤라똘리 마을의 로힝야 주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했다. 증언에 따르면 로힝야는 교육 등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라도 공직에 진출하지 못했다.[20]

당시 군부는 로힝야 주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이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제약하고 이는 생계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었다. 라카인 정착촌이 2012년에 뚤라똘리 마을 남쪽 강가에 건설된 후,[21] 군부는 로힝야의 토지를 몰수하여 라카인 정착민, 쿠이(kui)족, 또는 불교사원에 배분했다.[22]

> "정부는 10년전에 저희 부모님의 땅을 몰수하고 라카인 주민들에게 배정했습니다. 그 땅을 받은 라카인 사람들은 무슬림들에게 다시 되팔았습니다."[23]

"2012년 이후, 정부는 우리로부터35카니(kanis)의 토지를 압수하여 라카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24]

C. 허가제 결혼과 출산 제한

미얀마 정부는 뚤라똘리 마을의 로힝야의 결혼과 자녀계획을 심각하게 제약했다. 증언에 따르면 로힝야는 결혼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고 군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했고 이를 어길 시 최악의 경우 구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우선, 결혼하고자 하는 로힝야는 마을 행정관에게 일반적으로 50,000~100,000짯을 지불하고[25] 결혼허가증 신청서에 그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했다.[26] 지불액은 결혼허가증 신청자 가족이 보유한 재산의 수준에 따라 다양했다.[27] 적게는 10,000짯 또는 30,000짯을 지불했다는 증언도 있다.[28]

그리고 로힝야 신랑신부는 나사카(NaSaKa=현 국경경찰대 Border Guard Police) 섹터 책임자로부터 결혼허가증(La Tei Guwang)을 받아야 했다. 뚤라똘리 마을의 로힝야 출신 젊은 커플은 10년전에는 무미르칼리(Mumir Khali) 소재의 넴래(Nemmray=BGP캠프)로,[29] 3년전에는 볼리바자르(Bowli Bazaar) 소재의 넴래[30] 에 출석하여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31] 100,000~350,000짯을 지불했다.[32] 평균 시세는 100,000짯이었다.[33] 증언에 따르면 최근에는 넴레로 출석하지 않고 마을행정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34]

"저는 결혼허가를 얻기 위해 마을행정관에게 100,000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결혼허가를 위해 150,000에서 200,000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를 비롯 로주마 카툰은 100,000짯을, 누룰 아민과 모하마드 아민은 150,000짯을, 사이둘 아민은 200,000짯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마을행정관에게 돈을 지불 했고, 그는 넴레에서 국경경찰과 그 돈을 나누었습니다."[35]

결혼허가 신청자들은 섹터 책임자의 질문에 답하고 지문날인과 사진을 찍어야 했다.[36] 그리고 섹터 책임자는 둘[37] 또는 셋[38] 이상의 자녀를 낳지 말 것과 첫 와이프가 살아있는 한 다른 여성과 결혼하지 말 것을 교육하고,[39] 로힝야로부터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40] 결혼허가증을 받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 벌금[41] 또는 7년이하의 징역형[42] 에 처해졌다.

"제 남편은 우리가 허락을 받지않고 결혼을 한 이유로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석방 된 이후, 우리는 결혼허가를 받았습니다. ... 우리는 결혼 할 때 결혼허가를 받기위해 쿠미르 칼리(Kumir Khali)에 있는 국경경찰대(BGP) 섹터 책임자에게 300,000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 여동생 역시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행정관의 허락을 얻기 위해 여러곳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라카인 주민들은 결혼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허가증에는 '두 번째 부인을 가질 수 없으며',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43]

"아미르 호세인의 아들인 누르 아메드(40)와 이레 보수의 아들인 라피크(25)는 결혼허가증 없이 결혼하여 7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44]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미르 바수의 아들인 모하메드 라피크(25)와 술탄 아메드의 아들인 모하메드 아민(21)은 결혼허가증없이 결혼하여 7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45]

증언에 따르면 정부는 마을에서 로힝야 주민들을 소집하여 자녀를 둘 이상 낳지 말것을 지시하기도 했다.[46]

로힝야 주민들은 자녀가 태어난지 10일 이내에 가족등록부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47] 이들은 자녀당 5,000~50,000짯의 비용을 등록비 명목으로 마을행정관에게 지불해야 했다.[48] 증언에 따르면 등록비 지불없이는 새로 태어난 자녀를 등록할 수 없었던 사례도 있다.[49] 등록을 늦게 신청하는 경우도 벌금을 내야 했다.[50]

"만약 한 가정이 그 제한을 어길 시 아이 한명당 100,000짯의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저는 네 자녀가 있었습니다. 몇 년전, 미얀마 정부는 아이의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저에게 50,000짯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제가 늦게 등록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51]

둘 또는 셋 이상의 자녀를 낳은 로힝야 가족들은 벌금으로 그 자녀당 100,000~300,000짯를 지불해야 했다.[52]

"저에게는 한 자녀가 있습니다. 제 형제들과 이웃들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그들은 국경경찰대에 300,000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 사촌 카비르 아메드(30)는 3년 전 국경경찰대에 300,000짯을 지불 했습니다."[53]

D. 종교의 자유 부인

미얀마 군부는 뚤라똘리 마을 로힝야족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했다. 증언에 따르면, 2012년 이후로 로힝야의 모스크 사용은 금지되었다.[54] 2013년, 마을 행정관은 종교교사들에게 모스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며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55] 국경경찰대는 이슬람교사를 캠프로 불러 종교행사를 가질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56] 이들은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madrasha) 또는 목탑(moktab)도 폐쇄했다.[57] 그래서 로힝야 주민들은 모스크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었다.[58] 일상적인 기도[59] 와 주마(금요일 예배)기도[60] 및 설교,[61] 이드(Eid)[62] 등 축제기도 등도 허용되지 않았다. 확성기를 이용하여 기도시간을 알리는 방송도 허용되지 않았다.[63]

축제기간에 소를 도축하는 것도 비용을 지급해야만 가능했다.[64] 30,000~100,000짯을 납부해야 했다.[65] 또는 1,759g의 소고기를 마을 행정관에게 제공해야 했다는 증언도 있다.[66]

증언에 따르면 로힝야 주민들은 1~2명의 망을 세워두고 모스크나 어느 집에 모여 비밀스럽게 기도하거나 종교행사를 열었다.[67] 마을행정관과 군인들은 로힝야 주민들이 종교행사를 가진 것을 적발하면 이들을 체포, 구타하고 벌금을 부과했다.[68] 석방을 위해서는 또는 벌금으로 적게는 10,000~50,000짯,[69] 많게는 100,000~300,000짯[70] 을 지불해야 했다.

"우리는 모스크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동안 군인들이 오는지를 아이들에게 망을 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했고 아이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쳤습니다. 군인들은 모스크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적발하면 돈을 뜯어갔습니다. 제 남편인 압둘 라힘(23)은 1년 전에 군인과 행정관에게 기도를 하는 동안 발각되었고, 10,000 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71]

"제 처남들 사둘아민(28)과 라마트울라(18)는 모스크에서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국경경찰대와 마을행정관에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들은 모스크에서 책을 읽는 중이었고, 망보던 사람들이 마을행정관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50,000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72]

"저는 마을행정관이 기도시간에 저를 발견했을 때 30,000짯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2014년엔 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며 25,000짯을 내도록 했습니다."[73]

심각한 경우 기도하다가 군대에 잡혀가 실종된 사례도 있었다.[74] 어느 날 마을행정관은 어느 증언자에게 "우리 종교로 넘어오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75]

"제 처남인 라루 미아는 기도하던 것이 발각되어 군인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휴대전화와 피 묻은 옷을 발견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죽었을거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 그는 모스크 관리자였습니다."[76]

E. 이동의 자유의 심각한 제한

정부는 뚤라똘리 마을 로힝야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전면 부인했다. 첫째, 로힝야 주민들은 이웃 마을에 다니는 것도 마을 행정관으로부터 여행 허가(Taw Ken Za=Form No.4)를 받아야 했다. 여행 허가는 08:00~17:00(9시간) 동안 유효했고[77] 밤에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다.[78] 여행허가를 받는데 하루에 기본적으로 1,000짯을 지불해야 했다.[79] 증언에 따르면 근래에 그 비용은 5,000짯으로 상승했다.[80] 15일 이상은 10,000 짯을 지불해야 했다.[81]

> "우리는 구나파라와 초르파라에 다닐 수는 있었지만, 우리 마을 강 건너의 소둘라 초르(Sodullah Chor)까지는 이동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행정관에게 허가서를 받아야 했고 5,000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82]

> "우리는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마다 행정관에게 허가서를 받을 때 1,000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디올똘리나 와이꽁으로 이동한다면 7일간의 여행을 위해 1,000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그 대가가 5,000짯으로 인상됐습니다. 우리는 디스트릭트(district)에 다녀오려면 여행허가서를 받기 위해 마을행정관에게 5,000짯을 내야 했습니다."[83]

둘째, 로힝야 주민들은 디스트릭트(district)와 다웅도우 타운십(Maungdaw township)을 방문하기 위해서도 5,000짯 이상을 지불하고 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다.[84] 50,000짯 이상을 지불했다는 증언도 있다.[85] 그리고 로힝야 주민들은 라카인주의 주도인 씨트웨와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방문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86]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증언자도 있었다.[87]

> "씨트웨와 그 너머로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멀리 가본적이 없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릅니다."[88]

로힝야 주민이 허가된 시간을 지나서 여행하는 경우 군인들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빼앗아갔다. 예컨대, 여행 허가시간보다 30분이 지나서 이동하다가 체포된 증언자는 10,000짯을 국경경찰대에 지불해야 했다.[89] 여행허가 기간보다 5일 늦게 귀가한 사례에서 증언자는 마을 행정관이 자신의 가축을 강탈해 갔다고 증언했다.[90] 증언에 따르면 로힝야 주민들이 여행 허가를 받아 허가된 시간내에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검문소의 군인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91]

로힝야 주민이 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국경경찰대는 해당 주민을 체포하여 구타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하였다.[92]

> "제 아들 란잔 알리와 누르 카심은 볼리바자르에서 돌아 올 때 처벌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을행정관에게 낼 돈이 없는데 바자르로 가야 했다면, 비밀리에 검문소를 지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제 아들들은 바자르에서 돌아와 체포되었고 수 시간 동안 구금된 상황에서 동물처럼 맞고 처벌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18살과 22살이었습니다."[93]

벌금은 20,000~50,000짯 수준이었다.[94]

> "우리 마을행정관은 사둘라 소르에서 압둘 모토롭의 아들 쇼픽(20)의 돈을 강탈했습니다. 그는 뚤라똘리에 야채 농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강탈한 금액은 한번은 20,000짯, 다른 때엔 30,000짯에 달했습니다."[95]

> "제 남편은 여행 허가 없이 이동했다는 혐의로 국경경찰관이 체포했습니다. 마을행정관은 국경경찰관에게 가서 제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국경경찰관은 제 남편을 때리고 20,000짯을 요구했습니다."[96]

국경경찰대는 때때로 로힝야 주민을 무장세력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구금하기도 했다.[97]

> "우리 마을주민 자키르 아하메드의 아들 아만 울라(25)는 장작을 구하러 숲에 가는 중 거짓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군은 그가 무장세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남동생인 살림(15)도 역시 쿠미르칼리 마을에 방문하다가 군이 체포해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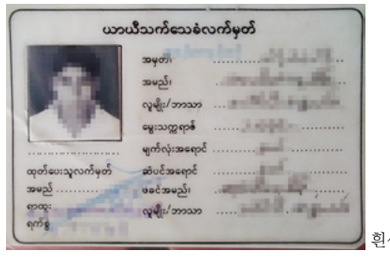
F. 시민권의 박탈

뚤라똘리 마을 로힝야 주민들에게 시민권은 박탈되었거나 부여되지 않았다. 로힝야 주민들은 1982년 시민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시민권을 인정받았다.[99] 조부모, 부모, 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시민권을 인정받은 증언자가 있었다.[100] 일부는 1982년전까지 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핑크색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었다.[101] 1982년 시민권법이 제정되고 시민권이 발탈되면서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주민들에게 흰색의 임시카드를 발급했다.[102] 이를 이아이카프라(Yiayi Caffra)라고 부른다.[103] 미얀마 군부는 이들의 임시카드를 다시 회수하고 수령확인(receipt) 카드를 발급했다.[104]

1982년 이후에 발급된 임시카드에는 뚤라똘리 로힝야 주민들은 국적이 벵갈리로, 종교는 이슬람으로 표기되었다.[105]

> "저는 1982년까지는 시민권을 받았었지만 1982년에 버마 정부는 발탈했습니다. 저는 1994년에 흰색 임시카드를 받았었고 정부는

AK카드(시민권자 신분증)



흰색 임시카드

가족등록증 (Family registration form)

이것을 다시 수거했습니다. 그 카드에 저는 벵골인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AK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106]

"저는 남성용으로 분홍색 AK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여성들에게 AK카드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뒤 제 국적이 벵골인라고 적혀있는 이아이 카프라(Yiayi Caffra)라 불리는 임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107]

증언자 전원은 국적확인카드(Nationality Verification Card, NVC)에 등록하지 않았다.[108] 로힝야 주민들은 국적확인카드가 로힝야를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인식했다.[109]

"1982년까지 저는 분홍색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1990년 이후로는 흰색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카드에는 저의 국적이 벵골인이며 종교는 이슬람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미얀마정부는 로힝야를 국적확인카드에 등록하고자 했지만, 국적확인카드가 우리를 이방인으로 등록하는 것이었기에 우리는 거부했습니다."[110]

"우리는 수세기동안 미얀마에 있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시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미얀마 사람입니다. 우리는 국적확인카드가 외부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적확인카드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111]

G. 투표권의 박탈

뚤라똘리 마을의 로힝야 주민들은 2015년 이전에는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나 2015년 총선부터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112]

H.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제약

뚤라똘리 마을 로힝야 주민들은 보건소와 병원 등 의료서비스로의 접근에 제약이 존재했다. 첫째, 볼리바자르에 위치한 병원에 가기 위해 여행허가를 받아야 했다.[113]

"우리는 우리마을에 있는 의사를 보러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심하게 아프거나 중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은 볼리 바자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1,000짯을 내고 여행허가증을 받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마을로 가기 원할 경우 15일 동안은 5,000짯을 내고 여행허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114]

둘째, 증언에 따르면 의료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의료비가 없으면 치료가 거부되었다.[115]

"1년 전 저는 설사때문에 볼리바자르의 보건소에 입원 했었고, 280,000짯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라카인 사람들은 돈을 낼 필요 없었던 반면에 무슬림들은 돈을 즉시 내지 못할시에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시 지불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절당했습니다."[116]

의료 접근권이 제약된 뚤라똘리 마을의 로힝야 주민들은 소위 마을의사로 불리는 로힝야 출신의 의사 자격이 없는 비전문의료인의 도움을 받았다.[117] 이들의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큰 액수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118]

"라카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들이 많았고, 라카인들은 치료받는데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처남인 술탄은 우리 마을의 로힝야 의사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몰래 치료했는데, 왜냐하면 적발되면 정부에 600,000~700,000짯을 벌금으로 내야했기 때문입니다."[119]

I. 강제노동에의 일상적 노출

정부는 뚤라똘리 마을의 로힝야 주민들을 군대의 강제노동에 동원했다. 로힝야 주민들은 뚤라똘리 캠프, 사둘라초르(Saydulla Chor), 볼리바자르(Boli Bazaar) 넴레 캠프 내 공사,[120] 제초작업,[121] 청소,[122] 물자 운반작업,[123] 등에 동원되거나 불교사원의 수리와 식수 운반, 물자 운반과 라카인 주택의 수리 등에 동원되었다.[124]

노동에 대한 어떠한 댓가도 지급된 사례가 없고,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다.[125] 군은 로힝야 주민들이 지정된 날에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했다.

"저는 강제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마을행정관은 우리에게 교대로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통보하면 우리는 명령대로 해야했습니다. 우리는 동원되어 군부지를 건설하고, 불교사원을 짓고,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으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라카인 축제가 열릴 때에는 사원의 여러곳들을 청소하기 위해 우리를 강제노동시켰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절하면, 마을행정관은 우리를 때리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마을행정관은 제가 강제노동을 거부하자 25,000짯과 큰 닭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너는 내 명령을 무시했다'라고 했습니다."[126]

남편을 동원할 수 없었던 군인은 그 아들을 대신 데려가 노동을 시켰다.[127] 매월 8~10회가량 동원되었다는 증언이 있다.[128] 강제동원에 응할 수 없었던 로힝야 주민들은 구타당하고 벌금을 내야 했다.[129] 군대는 5,000짯을 빼앗아 갔다.[130] 50회 넘게 벌금을 내야 했고 20,000~50,000짯의 벌금을 내야 했다는 증언이 있다.[131] 군인들은 동원된 로힝야 주민들의 작업수행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구타도 서슴치 않았다.[132] 군대는 야간 경계 근무 중 잠을 자는 로힝야 주민들을 구타하고 돈을 강탈했다.[133]

V. 2017 학살

A. 지리적 배경

뚤라똘리(버마어 명칭: 민기)는 방글라데시 접경지역으로부터 약 12킬로미터 떨어진 마웅도우 북부의 작은 마을이다. 뚤라똘리 마을에서 남쪽으로는 돈백(Done Paik) 마을, 동쪽 강 건너에 와이꽁(Whykhong) 마을, 그리고 강건너 북쪽으로 디올똘리(Diyaltoli)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북쪽에서 흐르는 프루마(fruma) 강이 뚤라똘리 마을을 감싸듯 동쪽과 남쪽으로 흐른다. 마을 동쪽으로 벼농사와 땅콩 농사를 짓는 넓은 농지가 있고 그 너머 강변에는 지역사람들이 데저트(desert, 이후 강변)라고 부르는 모래사장이 있다. 마을 서쪽으로는 산이 자리하고 있다. 뚤라똘리는 빌리지 트랙(village tract)으로서 세부적으로 도인파라(Doin para, 남쪽마을), 무라파라(Mura para, 북쪽마을), 소르파라(Chor para, 강변마을), 구나파라(Guna para, 산속마을), 그리고 도인파라 옆에 위치한 라카인마을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마을에 375개의 구조물이

있었고 인구는 4,300명 수준이었다.[134] 아디가 인터뷰한, 뚤라똘리 행정조직의 내부정보를 잘 아는 생존자는 마을에 335 가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역행정조직이 혈연관계에 있으나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가족도 같은 세대주 명단에 편입시켜 계산한 가구들이 335 가구에 포함되었다고 했다.

B. 8월30일 이전

뚤라똘리 마을 로힝야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2016년 10월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135] 여행 제한이 확대되었다.[136] 군대와 국경경찰대(이후 '군경')는 주민들이 마을밖으로 다니는 것을 금지했다.[137] 주민들은 마을 밖 농지에서 추수 등 생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138] 여행허가가 있는 주민들도 시장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다.[139] 이 때문에 식량이 바닥나 쌀과 바나나 잎으로 연명했다는 증언도 있다.[140]

군경은 여행 금지 조치를 어기는 주민을 구타하고 고문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강탈했다.[141] 그 액수는 상황에 따라 20,000~200,000짯에 달했다. 군경은 저녁 8시경 집 대문 밖에서 발견한 한 주민에게 100,000짯의 벌금을 부과했다.[142]

> "우리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마을행정관은 제한을 어긴사람들에게 100,000~200,000짯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강탈했습니다. 만약 돈을 내지 못할 때에는 그 희생자를 국경경찰대에 보냈고 그곳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 형 모하메드 와레스(65)는 체포되어 국경경찰대에 넘겨졌고, 심한 고문을 당한 뒤 풀려났습니다."[143]

뚤라똘리 마을 로힝야 주민들에 대한 군경의 폭력은 2017년 8월에 더욱 심해졌다. 군대는 8월 어느 날 새벽에 마을 주민을 불러내 모아놓고 뚤라똘리에 숨어 있는 무장세력을 넘기라고 종용하며 몇몇 집을 부수었다.[144] 마을의 한 가운데 살았던 피해자는 8월25일 군인들이 집을 부셨다고 증언했고[145] 아디는 당시 무너진 집의 광경을 담은 비디오를 확보했다.

또 8월30일을 앞둔 일주일 전쯤 군대와 경찰이 마을을 봉쇄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가구별 명단과 대조하며 남성들의 소재를 확인하였다.[146] 군대와 경찰이 마을에 진입한다는 소식을 접한 남성들은 모두 산으로 피신한 뒤였다.[147] 이들은 여성과 노인들을 소르파라의 오래된 '모스크 터'에 모이게 한 후 국적확인카드에 등록하라고 요구했다.[148] 당시 마을행정관이 통역하기로 군인은 "국적확인카드에 등록하지 않으면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다.[149] 당시 군대와 경찰은 집을 수색하며 금과 장신구를 약탈했다는 증언이 있다.[150]

C. 군경의 이웃마을 공격과 이웃주민들의 뚤라똘리로의 피신

2017년 8월30일 이전에 뚤라똘리 인근 마을은 순차적으로 군경의 공격을 받았고, 상당수의 인근주민들은 8월29일 뚤라똘리 마을로 피신왔다. 8월26일~27일, 뚤라똘리로부터 남쪽에 위치한 돈백(Done Paik) 마을은 볼리바자르 넴레에 주둔했던 군경의 공격을 받았다.[151] 약300명의 군경[152] 과 일부 라카인, 힌두, 차크마(Chakma)는 마을을 에워싸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했다.[153] 총격으로 인한 사망[154] 과 자의적 체포의 사례[155] 가 보고되었다. 군경은 마을의 로힝야 집들에 불을 질렀다.[156]

• 와이꽁 마을 공격

증언에 따르면 군경은 8월25일부터 매일 뚤라똘리 마을의 강 건너에 자리잡은 와이꽁 마을을 공격했다. 군경은 40여채의 집을 불태웠다.[157] 8월28일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158] 군경은 와이꽁 마을의 남쪽에서 진입하여[159] 마을의 동쪽과 북쪽까지 에워싸고[160] 마을에 향해 발포했다.[161]

로힝야 주민의 일부는 와이꽁 마을의 강변으로 피신을 갔고[162] 대부분은 산속으로 몸을 피했다.[163] 군경은 강변으로 피신가는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164] 그리고 군경은 집집마다 수색했고[165] 라카인과 쿠이(Kui), 무로(Mro)족들[166] 은 재산을 약탈해 갔다. 이들은 장신구, 현금, 가축, 식량, 고추, 콩, 오토바이, 생활가재 등을 가져갔다.[167] 그리고 마을의 모든 집에 불을 질렀다.[168]

군경의 공격으로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169] 강변에서 세 명의 사망자를 목격한 증언[170] 과 여아의 총격 사망을 목격한 증언,[171] 그리고 산으로 피신가는 길에 목격한 남동생과 아들의 총격사망 사례 등이 있었다.[172] 방화로 인해 거동하기 힘들었던 노인여성이 사망했다는 증언도 있다.[173] 사건 당일 오전 마을에 발생한 강간을 목격한 증언도 있다.[174]

증언에 따르면, 피신갔던 와이꽁 마을 로힝야 주민들 일부는 뚤라똘리 마을로 피신했다.[175] 일부는 무라파라 인근의 산에 피신해 있었고,[176] 400여명의 와이꽁 주민들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177] 일부는 소르파라로 피신했다.[178]

• 디올똘리 마을 공격

증언에 따르면, 군경은 8월25일부터 매일 디올똘리 마을에 진입했고 주민들은 산으로 피신했다.[179] 8월29일 오전, 군경은 마을을 포위했다.[180] 디올똘리 마을 로힝야 주민들은 그룹을 지어 군경 대열 앞을 가로막고 마을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군경은 발포했다.[181]

> "우리 모두는 '만약 우리가 군인들 앞에 선다면 그들은 다시 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총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182]

그리고 무차별하게 발포했고[183] 마을 집들을 불태웠다.[184] 증언에 따르면 무자비한 발포로 인해 남편을 포함한 마을주민 여섯이 사망한 사례,[185] 사위가 살해당한 사례,[186] 자신의 딸을 포함한 주민 다섯이 사망한 사례,[187] 처남이 살해당한 사례[188]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피신 중에 사망한 마을주민들을 목격한 증언자들도 다수였다.[189]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마을주민들이 총상을 입었다. 로힝야 마을의사는 75명의 부상자를 치료했다고 증언했다.[190] 총상을 입거나 총상 부상자를 목격한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191]

강간 사례도 있다.[192] 증언에 따르면 25여명의 군인들이 디올똘리와 와이꽁 사이에 위치한 집에 두 명의 로힝야 여성을 가두고 강간했다.[193]

디올똘리 인근에 사는 머리에 터반을 두르고 론지와 조끼를 입은 므로(Mro)족 사람들이 재산을 약탈해 갔고[194] 이날 마을의 300~600여채의 집들이 불태워졌다.[195]

디올똘리 마을의 로힝야 주민들은 디올똘리 데져트로 가서 곧바로 뚤라똘리로 피신오거나[196] 산으로 피신간 후 저녁과 밤에 뚤라똘리 마을로 피신해왔다.[197] 증언에 따르면 뚤라똘리 무라파라의 인근 산에 숨어 있거나[198] 어느 집에도 피신했다.[199] 당시 뚤라똘리에 도착했을 때 와이꽁, 롯보이, 가라토르빌 주민들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200] 3,000~4,000명에 달했다.[201]

증언에 따르면 이날 작전을 수행한 군경은 약 200~300명이었다.[202] 상점을 운영했던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던 군인들이 아니었다.[203]

• 인근마을 주민들의 피난처가 된 뚤라똘리 마을

증언을 종합하면, 8월29일 밤 뚤라똘리 마을에는 와이꽁과 디올똘리 등 인근마을에서 온 다수의 주민들이 피신해 있었다. 일부는 가르토르빌과 롯보이 마을에서 온 주민들 그리고 부티동 타운십 출신으로 방글라데시로 피난가던 중이던 로힝야 사람들이었다.[204] 이들은 주로 뚤라똘리의 소르파라와 무라파라에 피신해 있었는데 집안과 외양간 뿐만 아니라 주변 야산에도 다수 숨어 있었다.[205]

> "와이꽁과 디올똘리, 가라토르빌 및 뚤라똘리의 네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월 30일 이전에 그 마을들은 소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뚤라똘리에 피신해 있었습니다."[206]

아디가 수행한 별도의 인터뷰에 따르면, 뚤라똘리 마을의 로힝야 주민 라시드 아하메드(33)는 디올똘리에서 온 한 가족 5명을 집에 머물게 했다.[207] 사애드 아람(39)는 두 가족 12명을 호스팅했다.[208] 압둘 라시드(45)는 부티동에서 온 다섯 가족 28명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도왔다.[209] 라히르 마하메드(56)은 디올똘리 두 가족 15명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다.[210] 압둘 하미드(28)는 와이꽁 마을의 두 가족, 디올똘리 세 가족 총 5가족 30명을 보호했다.[211] 술탄 아하메드(58)는 디올똘리 두 가족 25명을 호스팅했다.[212]

무라파라에 집이 있는 후세인 알리(29)는 집안에 여성 25명, 집 마당에 남성 70명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디올똘리 주민이었고 이들은 8월27일부터 사건 당일 아침까지 계속 머물렀다.[213] 이들 중 사건 당일 20여명은 산으로 피신해서 생존했고, 강변으로 피신간 이들은 모두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14] 마을 한가운데 살던 도르베시(52)는 디올똘리 출신 세 가족 35명을 본인 집에 보호하고 있었다.[215] 이들은 전날 오전10시경 왔다가 8월30일 새벽 3시경 산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이동했다.[216]

증언에 따르면 와이꽁 주민들의 상당수는 30일 새벽 군인이 마을을 공격하기 전에 강건너 와이꽁 방향 또는 똘라똘리 마을의 무라파라 쪽의 산을 통해 방글라데시로의 피난길에 나섰고, 대다수의 디올똘리 마을 주민들은 뚤라똘리 주민들과 같이 데져트로 피신갔다가 학살을 당했다.[217]

> "우리는 강둑에서 약 1,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합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초르파라와 도인파라, 무라파라, 디올똘리, 와이꽁에서 왔습니다. 군대는 총격을 가하면서 강변에 접근하여 강둑을 따라 마을 주민들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218]

D. 8월30일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8월29일 마을행정관 아웅쩌세인(Aung Kyaw Sein, 또는 우라툰, 라카인 이름)은 뚤라똘리 마을의 로힝야 노인들과 여성들에게 다음날 군경이 마을에 오겠지만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니 강가 강변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라 당부했다.[219]

> "마을행정관은 마을을 떠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그는 군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몇몇 집들만 불태울 것이며,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강둑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있으라 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지 않고 떠날 것이라 말했습니다."[220]

> "2017년 8월29일 마을행정관은 학교에서 우리와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마을행정관이 우리에게 마을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군대와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집들을 태운다면 강둑으로 가세요."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만약 그런다면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221]

뚤라뚤리 마을의 로힝야 주민들 다수는 8월30일 군경이 마을에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고 있었으나 마을행정관의 말을 믿고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222]

• 마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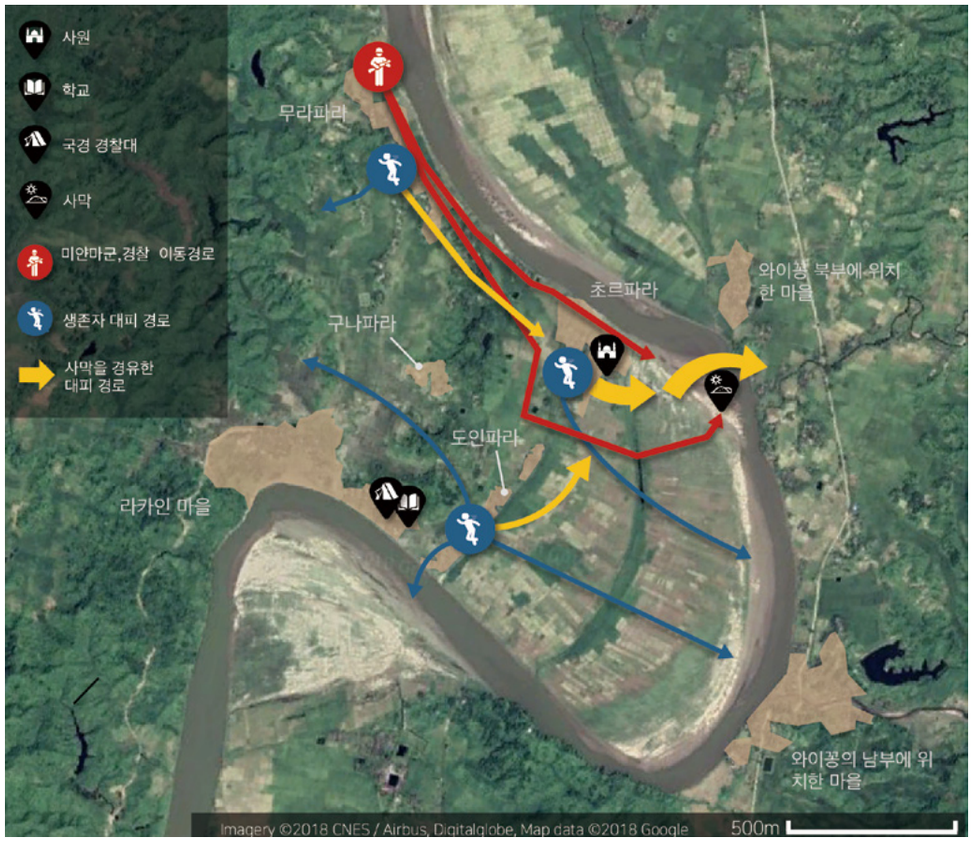
군경의 인근마을에서의 작전을 예의주시하던 뚤라똘리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8월29일 뚤라똘리 마을에서 북쪽에 위치한 롯보이(Loubboi) 마을의 라카인 학교에서 밤을 지냈다.[223] 200여 명의 군인과 국경경찰은 아침8시경 뚤라똘리의 북쪽 진입로를 따라 무라파라로 진입했다.[224] 이들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던 라카인(Mogh), 쿠이(Kui)족, 므로(Mro)족 출신의 민간인들도 함께 있었다.[225] 이들은 뚤라똘리 출신이 아니었다.[226]

무라파라에 진입한 군경은 2~3 그룹으로 나뉘어 작전을 벌였다.[227] 한 그룹은 무라파라 마을에 진입하며 총을 발사하고 집들에 불을 질렀으며 다른 그룹은 강을 따라 곧장 소르파라의 강변으로 향했다.[228]

무라파라 주민들 중 미처 피신하지 못한 이들은 8월30일 학살의 첫 희생자가 되었다.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아부 샤마(Abu Shama)와 그의 부인 로티아(Lotia)는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229]

> "오전 8시에 일이 터졌습니다. 군경은 무라파라로 들어와서 공격했습니다. 아부 쇼마(95)와 그의 아내인 로티아(80)는 8월 30일 학살의 첫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230]

나비(25)는 "군인들이 총을 난사했을 때 고모는 너무 나이가 많아 걸을 수 없어 집에 남겨 졌어요. 저도 도망가다가 고모를 모시고 가려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집이 불타고 있었어요."라고 증언했다.[231] 또 군대가 마을로 진입한 후 급히 무라파라 방향으로 도주하던 아호마드(35)는 중간에 집쪽을 뒤돌아 보니 군인들이 엄마를 집안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고 증언했다.[232]



• 강가에 모인 주민들 포위

군경이 마을에 들이닥치자 뚤라똘리 주민들은 곧장 강변으로 향했다.[233] 뚤리똘리에 몸을 피하고 있던 인근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234] 소르파라 인근의 강변에 있던 큰 나무 주변에 다수가 모여 있었고,[235] 여기저기에 소그룹별로 모여 상황을 주시했다.[236]

> "저는 제 가족과 함께 강둑으로 피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와 같이 여기 저기에 흩어졌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강둑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경은 초르파라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을 맞아 손이 다친 구라 미아의 아들이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족이 살해됐습니다."[237]

인터뷰 대상자 105명 중 98명(93%)은 군경이 강변에 모인 민간인들을 겨냥하여 무차별한 총격을 가했다고 증언했다.[238] 증언에 따르면 총탄이 비오듯 쏟아졌고 일부는 총에 맞아 쓰러졌다.[239]

> "우리는 강둑에 모였습니다. 군경은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강둑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주민들은 강둑에 소를 메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발사한 총에 소와 남자들이 맞았습니다."[240]

일부 주민은 곧장 땅에 엎드렸고,[241] 일부는 여기저기로 흩어졌다.[242] 그리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일부는 강으로 뛰어들어 강건너 와이꽁 마을로 헤엄쳐 피신했다.[243]

> "군경이 강둑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만약 그들이 남자들을 본다면 발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만약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발포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고 강 건너 와이꽁으로 건너 갔습니다."[244]

당시 강의 수위는 높아서 강을 건너기가 쉽지는 않았다.[245] 수영을 할 수 없었던 일부는 대나무,[246] 플라스틱 통,[247] 바나나 나무[248] 등을 이용해 강을 건넜다.

이윽고 군경은 데져트에 모여 있던 주민들을 포위했다.[249]

> "제가 언덕에 올랐을 때, 군경들이 강 북쪽의 강둑을 따라 강변에 있던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총 소리를 들었고 남자들은 여기 저기 뛰어 다녔습니다. 군경은 빗방울이 쏟아지듯 무차별하게 총을 발포했고, 사람들은 총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군경의 일부가 북쪽에서 강둑을 따라 내려오고 일부는 초르파라에서 논을 통해 강변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포위했습니다."[250]

주민들을 포위한 군경은 사람들에게 엎드리게 했다.[251]

> "저는 강가로 달려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 뒤 군경은 무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252]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강가에 모인 사람들은 1,500~2,000명으로 추산된다.[253] 뚤라똘리의 무라파라, 소르파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마을인 와이꽁, 디올똘리, 가라토르빌과 부띠동 출신의 로힝야 민간인 등도 있었다.[254]

• 남성: 등에 총구를 대고 발포하여 살해

군경은 주로 강둑과 주변에 자리잡고 주민들은 강기슭 아래에 있거나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255] 군경은 포위한 주민들 그룹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했다.[256]

"군경이 강둑에 도착했을 때, 군경은 무리를 에워싸고 여성들을 남성들로부터 분리시켜 강둑의 큰 구멍에 그들을 가뒀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분리한 후 군경은 남성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257]

증언에 따르면, 군경은 대부분의 여성을 강가의 물구덩이(terrain)에 별도로 앉게 한 후 에워싸고 남성들을 계속 쏴 죽이거나 칼로 죽였다.[258] 주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도망가려 할 때 군경은 총을 쏘면서 이들을 강변쪽으로 몰았다.[259]

무엇보다 군인들은 땅에 엎드린 남성들 등에 총구를 갖다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260]

"강을 건넌 후, 군경은 무리를 에워싸고 사람들의 등을 조준하여 발사했습니다. 남자들은 엎드려 있었고 군경은 총구를 남자들의 등에 갖다 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261]

군경은 노인들도 살해했다.[262]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이 로힝야 주민들이 '종교 교수'라고 칭하는 아하메드 후세인(90)을 겨눠 총을 발사했으나 죽지 않자 납작한 긴 칼로 살해했다.[263]

"저는 군경이 강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인 물라나 아하메드 후세인(Moulana Ahamed Hossain, 90)을 살해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에게 최소한 아홉 발을 쐈는데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전히 서있었습니다. 그 뒤, 두 명의 군인이 그분의 등을 걷어차고, 칼로 찔러 반쯤 죽이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불태웠습니다. 군경은 시체를 태우고, 집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264]

아하메드 후세인(90) 교수 ©뚤라똘리 주민 제공

군경은 남성들을 먼저 총살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여성도 살해됐다.[265] 한 증언에 따르면, 강건너로 피신하여 사건을 목격하고 있던 증언자는 큰 딸 누르 하리마(16)가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266] 그는 총에 맞은 순간 하리마가 "아빠"라며 소리쳤다고 기억했다.[267] 또 다른 증언자는 포위되어 강기슭에 엎드려 있다가 물웅덩이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죽은 여동생 로피카(17)를 발견했고 그 곳에서 시어머니 아미나 카툼(60), 시누이 파테마(20), 사라 카툼(13)도 모두 살해되었다고 증언했다.[268]

군인들은 총상을 입고도 살아있는 주민들을 총개머리판과 긴 칼로 살해했다.[269]

"그들은 남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잔인하게 찔렀습니다. 그들은 칼로 찌르고 총으로 가격했습니다. 군경은 총상입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을 때까지 가격하고 칼로 찔렀습니다."[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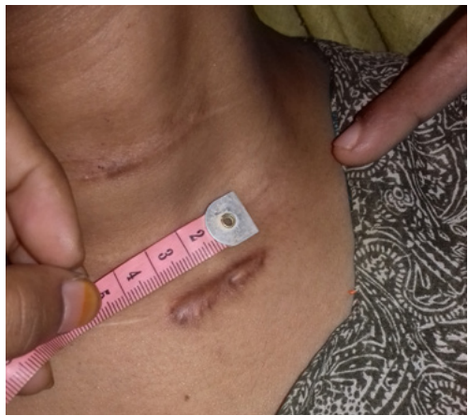
일부 주민들은 강에 뛰어들어 강건너로 피신했다.[271] 군경은 그들을 향해 집중사격하여 살해했다.[272]

"군대는 강둑으로 가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했고, 남성들을 총을 쏴 죽였습니다. 몇몇은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그들은 강으로 뛰어든 사람들까지 총을 쏴 죽였습니다. 군경은 모든 남자들을 무차별하게 발포하여 죽였습니다. 총격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273]

목격자에 따르면 로힝야 주민에 대한 총격은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었다.[274] 한 생존자는 강가를 건너 피신하기 전까지 강가의 작은 배 옆에 숨어있던 3시간 동안 총격은 계속 되었다고 증언했다.[275] 총격은 최대 6시간 지속되었다.[276]

"저는 마을사람들이 강을 건너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은 깊었고 그들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마을 사람들을 에워싸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 놓았습니다. 군인들은 남자들을 숙이게 하고 총을 쏴 죽였습니다. 총소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계속 되었습니다."[277]

군인들은 총격을 가한 후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라.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자 일부 생존자는 일어나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들을 총살했다는 증언이 있다.[278]


칼로 베인 여성의 목부위 ©아디

• 아동: 총, 칼, 불, 강

군경은 아동들을 끔직한 방식으로 살해했다.[279] 아디가 인터뷰한 105명의 증언자 중 83명(79%)이 군경에 의한 아동 살해 장면을 목격했다. 군경은 아동들을 총을 쏘거나 큰 칼로 죽이고 불구덩이와 강에 던져 살해했다.

칼에 맞아 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 ©아디

첫째, 105명의 증언자 중 49명(47%)은 군경이 아동들에게 총을 쏴서 살해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군경은 아기와 어린이도 죽였습니다. 세 아이들이 강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저는 군인들이 이 아이들을 총을 쏴 죽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체는 강가에 떠내려 갔습니다."[280]

둘째, 105명 중 65명(62%)은 군경이 아동들을 큰 칼로 죽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은 우는 아이들을 산채로 불구덩이로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잡으려고 하면 칼로 잘랐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칼에 잘려 죽었습니다. 일부는 도살당해 죽고, 일부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281]

남성의 등에 칼에 맞아 생긴 상처 ©아디

여성의 머리 뒷부분에 칼에 맞아 생긴 상처 ©아디

셋째, 전체 증언자 중 50명(48%)은 군경이 아동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죽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군인들은 엄마 품에 있던 어린 아이들을 낚아채 불구덩이로 던져 죽였다.

> "어떤 아기들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일부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일부는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군인이 제 아기를 낚아채 불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뒤 5~6명의 여성들을 집으로 데려 갔습니다"[283]

넷째, 105명의 증언자 중 73명(70%)은 군경이 아동들을 강물에 던져 죽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 "군경은 아기들을 어머니들로부터 빼앗아 강물에 던졌습니다. 제가 강을 건너는 동안 많은 죽은 아기 시체가 떠다니고 있었고, 물 속에서 제 몸과 닿았습니다."[284]

> "저는 또한 강에서 죽은 세 아기 시체를 집어들어 강둑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묻을 수 없었습니다."[285]

종합하면 증언자 27명(26%)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아동이 100명이하, 15명(14%)이 100~150명이라고 진술했고, 41명(39%)이 200명 이상이라고 진술했다.

> "오후 12시경이었습니다. 강둑 북쪽과 남쪽에 있던 여자들은 한 곳에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저는 남쪽에서 왔습니다. 가는 중에 저는 검은 옷으로 무릎에서 몸까지 덮힌 10살이 넘어 보이는 소년들이 죽은 채로 땅에 줄줄이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와 같이 긴 줄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286]

> "저는 군경이 약 200여명의 살아있는 아기를 강이나 불속으로 던져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기들을 칼로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하미드 호세인의 아이, 누룰 아민의 아이, 무스타피즈의 아이, 푸티아의 아이 그리고 누르 모하메드의 아이가 죽은 것을 봤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은 것을 봤는데 모두 기억 하지 못합니다."[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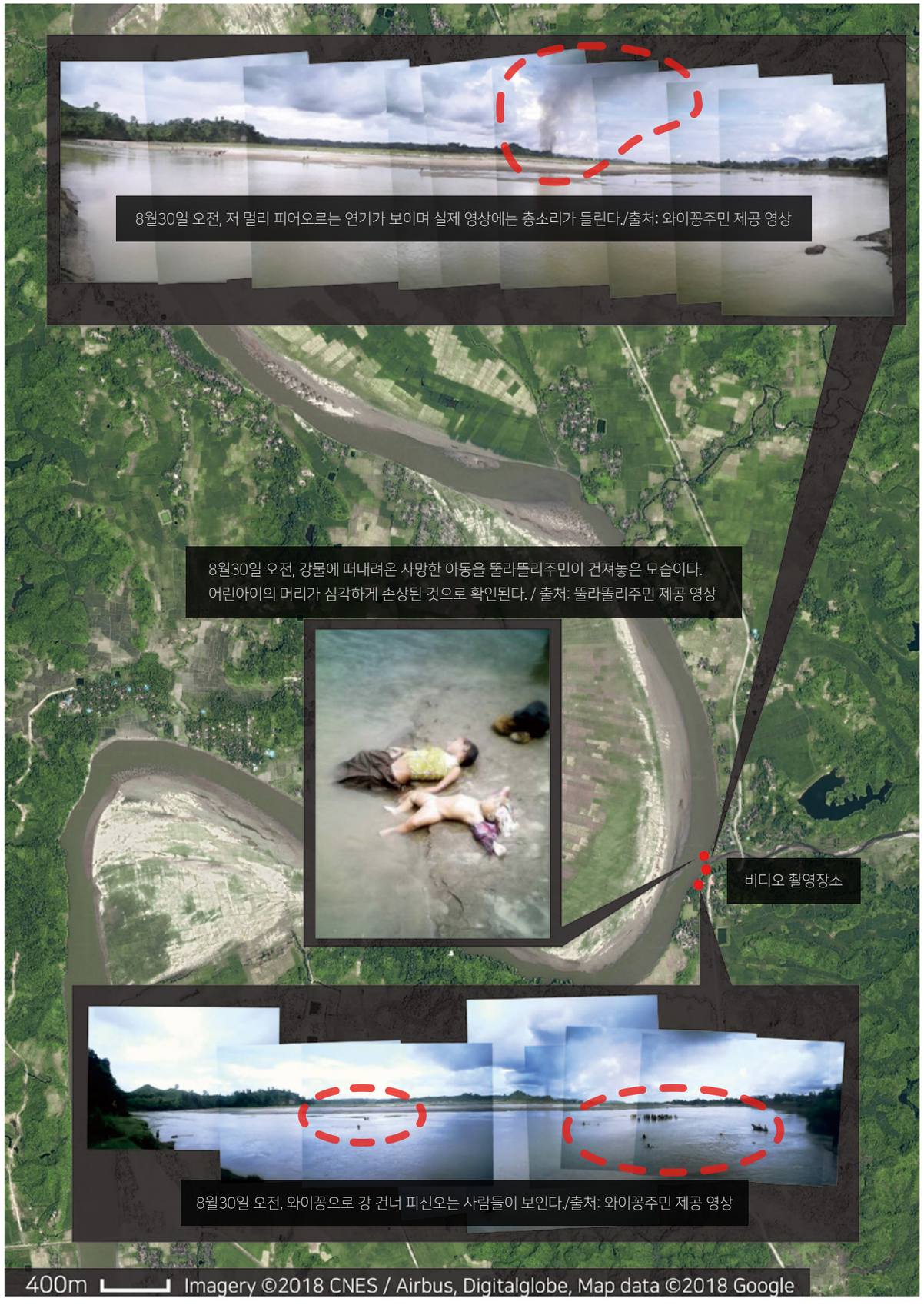
> "군경은 약 300명의 아기를 강으로 던져 죽였고, 약 200명의 아기를 불 속으로 던져 죽였습니다. 저는 다음의 아이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카말 호세인의 두 아이들, 파야즈 아하메드의 한 아이, 카이룰 아민의 세 자녀, 랄루의 한 아이, 와라즈의 세 아이, 누르 카비르의 두 아이, 파탄 알리의 두 아이, 딜 모하메드의 세 아이, 누르 모하메드의 한 아이, 사에드 울라의 한 아이, 오이 아메드의 한 아이, 하미드 호세인의 두 아이, 모하메드 소루만의 두 아이, 자히드 호세인의 두아이, 모하메드 하산의 한 아이, 누룰 이슬람의 한 아이, 라모트 울라의 두 아이, 모하메드 아민의 세 자녀 입니다."[288]

- 시신: 구덩이에 불태움

심층 인터뷰에 응한 생존자들의 가족 상당수가 살해되었다. 베검(12)은 당시 강변에 엄마, 오빠, 언니 등과 함께 있었으나 군인이 쏜 총에 맞아 모두 사망했다.[289] 후세인(19)은 함께 강변에 있었던 엄마 세몬 카툰(40), 여동생 카레다(12), 하시나 베검(10), 파테마(7), 수마야(1) 그리고 남동생 모하메드 수판(3)등 총 여섯 가족을 잃었다.[290] 친정가족 전부가 살해된 하시나(23)도 있다.[291] 엄마와 두 오빠네 가족 전부가 몰살당했다.[292] 군인들은 집에 있던 엄마와 올케 그리고 여조카를 불에 태워 죽였고 그 외 가족은 강변에서 총을 쏴 죽었다.[293]

> "제 남편과 아버지, 시어머니와 어머니, 자매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은 그 당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시아버지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과 시아버지를 제 눈앞에서 직접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294]

> "미얀마에서 저는 여덟명의 가족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아버지 누룰 아민(35), 어머니 크르시다 카툰(25), 여동생 타스민 아라(11), 남동생 물타자(8), 남동생 아라칸 울라(6), 남동생 에산 울라(3) 그리고 남동생 바르캇 울라와 한달된 아기가 살해 당했습니다. 제 할머니인 사에다 카툰(50)과 삼촌 호세인 아메드(30)와 두 명의 사촌도 살해됐습니다."[295]

"그들이 제 일곱 가족 모두를 살해했습니다. 아버지 압두 살람(50), 어머니 아누와라 베굼(45), 남동생 로피크(18), 모하메드 코리프(10), 그리고 여동생 쇼피카(15)와 아들 자히두르 라만(5) 그리고 딸 쇼피카 비비가 살해 당했습니다. 제 할머니, 이모, 그리고 이모의 세 자녀들 역시 군인들이 살해했습니다."[296]

증언에 따르면, 이들 가족의 시신은 집단매립지에서 태워졌다. 군경은 주민들을 살해한 후 살려둔 다수의 로힝야 남성들에게 구덩이를 파게 했다.[297] 증언을 종합하면 105명 중 76명(72%)이 시신이 집단매립지에서 불태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중 다수의 집단매립지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51명(48%)이었고, 집단매립지 세 곳이 있었다는 증언이 20명(19%)으로 가장 많았다.

"마을 주민들을 살해한 후, 군경은 여덟 사람에게 로힝야어로 라드룽(Ladrung)이라 부르는 큰 나무 근처에 큰 구덩이 세 개를 파게 했습니다. 저는 그 여덟 사람 중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압둘 라만의 아들 카이룰 아민(40)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해됐습니다. 군경은 구덩이들로 시체들을 끌고와서 그 안으로 그들을 던졌고 옷으로 맨 위를 덮었습니다. … 그들은 시체들에 휘발유를 뿌리고 태웠습니다. 이는 약 오후 3시경에 일어났습니다."[298]

증언에 따르면 헬리콥터가 라카인 마을에 가솔린과 무기[299] 를 가져왔고 마을행정관과 일부 라카인 주민들이 가솔린을 데져트로 옮겼다.[300] 6개의 가솔린통을 가져왔다는 증언도 있다.[301] 군경은 구덩이에 시신을 던져 넣고 시체 위에 옷과 덤불로 덥고 가솔린을 뿌려 불태웠다. 오후 3시경에 시작된 시신 태우기[302] 는 해가 지고 자정이 되어서도 계속되었고,[303] 시신은 밤새도록 태워졌다.

[304] 다음날 새벽까지 군경은 데져트에 있었다.[305]

"저는 남쪽에 위치한 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남편과, 자매,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경이 시체들을 구덩이로 끌고가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일몰 후에도 구덩이가 타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삼촌과 저는 밤 12시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그 뒤 강을 건너 와이꽁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타는 시체에서 나는 나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306]

"강둑 중앙에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군경은 그 나무 남서쪽으로 구덩이들을 팠습니다. 저는 군경들이 밤새 시체들을 태우는 것을 목격하고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머물며 그곳을 지켜보았습니다."[307]

- 여성: 강간 후 살해

군경은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남성과 분리하여 강가 모래사장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넓은 웅덩이에 앉히고 고개를 숙이게 했다.[308] 증언에 따르면 약 300~400명의 여성이 있었고,[309] 여성들이 품고 있던 아이들은 대략 100~200명 수준이었다.[310] 최소한 100명 이상이라는 증언도 있다.[311] 군경은 로힝야 주민들이 지니고 있던 물품을 압수한 뒤 불태웠다.[312] 그 중엔 서류와 금장신구 등도 포함되며 심지어 한 여성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금장신구를 빼앗아 갔다.[313]

4~6명의 군인 그룹이 여성들에게 와서 대략 5~7명을 뽑아 소르파라에 있는 민가로 데려갔다. 전체 105명 중 64명(61%)이 여성들은 소르파라의 집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했다.

"군경은 저를 끌고 집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다섯번에 걸쳐 총 스물 다섯 명의 여자들을 집으로 데려 갔습니다. 저는 태양열 패널과 베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에 그것을 놓고, 한 여자에게 그녀의 딸아이 중 한 명을 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마을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경은 앞서 다섯 그룹을 끌고간 집으로 저를 포함하여 다섯 명의 여성을 데려 갔습니다."[314]

여성들이 끌려간 곳은 소르파라에 있는 10~12채의 큰 집으로 군경이 불태우지 않고 남겨두었던 곳이다.[315]

"군경은 14채의 집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남성와 어린이 그리고 아기들을 죽인 후, 여섯 명의 군경은 5~6명의 여성들을 그룹으로 이 집들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제 처남 구라 미아의 집으로 여성들을 데려 갔습니다. 저는 군경들이 여성들을 10채의 민가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구라 미아, 누르 호세인, 모하메드 알리, 파리드 울라, 자카리, 사에드 악보르, 압둘 가푸르, 무라나 모하메드 소루만 그리고 압둘 말렉의 집이었습니다."[316]

"오전 10시경에 군경은 여성들을 물구덩이로 데려 가서 물 속에 앉게 했습니다. 오후 1시경에 군경들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네 명의 군인이 4~5명의 여자들을 그룹지어 데려가고, 이는 약 20여번 넘게 지속됐습니다. 군경은 그들을 8~10채의 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집들은 무하메드 알리, 구라 미아, 알리 아메드, 사에드 악보르, 마누 미아, 압둘 말렉, 압둘 마부드 그리고 누르 호세인의 집들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여자 형제들과 아내 역시 무하메드 알리의 집으로 끌려 갔습니다."[317]

군경은 여성들을 소르파라의 민가로 끌고가 먼저 돈과 금장신구를 빼앗았다.[318] 강간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도착한 민가에는 군경이 살해한 시신들이 쌓여 있었다.[319] 어느 강간생존자는 끌려가 도착한 집에 가득 쌓은 시신을 목격했고 끌려오는 길에 두 집에 가득 쌓인 시신을 목격했다.[320]

"군경은 저를 끌고 가기 전까지 200~300여명의 여성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무하메드 알리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집은 저희 집

생존자/목격자는 군인들이 여성들을 초르파라에 위치한 10개의 민가에 끌고 가 강간, 살해하였다고 진술했다. 빨간 점들은 생존자/목격자들이 가리킨 사건 발생 장소들을 나타낸다.

에서 3~4채 옆집이었습니다. … 그들은 이미 두 집을 모두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두 집이 시체들로 가득 찬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체들을 쌓았습니다."[321]

"이는 구라 미아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도착 했을 때, 저는 수많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문에 설 수 조차 없었습니다."[322]

대여섯명의 군인들은 민가에 도착한 여성을 구타하고 흉기로 찌른 후 여성이 지닌 현금 등을 빼앗았다.[323]

"군경은 막대기로 저를 구타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구타 후, 저로부터 90,000짯을 빼았아갔습니다. 저는 군경들이 다른 집들에서 여성들을 때리고 죽이기 시작한 것을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 나두니르 마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324]

군인들은 여성들을 같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구타하고 강간했다.[325] 그 후 여성들의 목을 자르고 머리를 내려쳐 살해했으며 집에 불을 질렀다.[326]

"6~7명의 군경은 우리들을 끌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안에서 그들은 제 어머니를 때렸고 제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부는 칼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막대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구타했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제 옷을 벗겼고 그들이 원한대로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 뒤로 제 어머니는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간 후 그들은 집을 불태웠습니다. 불똥이 제게 떨어져서 제가 다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제 추측으로 오후 5시 반경이었습니다."[327]

"세 사람이 저를 강간했습니다. 롯보이에서 온 쿠이족 사람과 군경들이 그랬습니다. 방안에는 우리 다섯 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미나 카툰(45)와 라지아 (17), 만타즈(18)와 누란키스(20)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벗기고 죽였습니다. 저는 집 안에 수 많은 시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찌름으로써 시체 위로 걷게 했습니다."[328]

"제 옆에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소리를 들은 군경은 그녀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죽은 엄마 옆에는 두 아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군경은 집안으로 다시 들어와 그 아이들을 총을 쏴 죽였습니다. 저는 의식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군경이 집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죽은 척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옥상에 짚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들이 이 집을 태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다른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옆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몇 분 뒤에 그들은 집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집이 불타면서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한 여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329]

증언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강간과 살해는 해질녘까지 지속되었다.[330]

"그 뒤로, 저희 어머니는 살해 당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간한 뒤에, 그들은 집을 불태웠습니다. 불똥이 저에게 떨어졌을 때 저는 의식을 되찾았고 제 추측으로는 오후 5시 반 경이였던 것 같습니다."[331]

강간생존자들의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군경의 한 그룹은 한번에 5~7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갔고, 많은 그룹이 여자들을 계속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울부 짖는 소리와 도움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나 군경들이 그들을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자들을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강간습니다. 울음 소리가 계속해서 집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집단으로 강간한 뒤에, 군경은 집의 문을 잠그고 여성들과 함께 집에 불질렀습니다."[332]

"저는 덜덜떨며 울부짖는 여성들이 집안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경들이 집을 떠나는 것과 집들이 불타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333]

성폭력 피해 여성과 그녀의 딸 / 캠프14(하킴파라), 방글라데시
©조진섭

- 방화

인터뷰 대상자 총 105명 중 96명(91%)이 8월30일 군경이 로힝야 집들에 방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증언에 따르면, 방화는 아침8시부터 시작됐다.[334] 군경은 론처를 발사하거나 가솔린을 집들에 뿌려 방화했다.[335]

> "오전 8시경, 군인들이 무라파라의 집들에 불을 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 그들은 론처를 발사하여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이 타버렸습니다."[336]

> "대학살 이후, 저는 군경이 론처를 발포하여 마을을 불태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아침 8시경이었고, 제가 대피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여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뒤 숲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솔린으로 불을 피웠고, 우리 집들은 많은 마른 나뭇잎과 함께 대나무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탔습니다."[337]

강간생존자들의 증언도 일치한다.[338]

> "우리는 화장실에 앉았습니다. 제 처남의 집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불이 북쪽으로 번졌을 때, 화장실 지붕 역시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 도망쳤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불탔습니다."[339]

> "제가 큰 집 중 하나에 끌려갔을 때, 저는 왜 다른 여성들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미리 왔던 모든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살해됐던 겁니다. 저는 많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 집안에서 여성 모두를 죽인 뒤 군인들은 문을 닫고, 론처를 쏴 집을 태웠습니다."[340]

- 재산 약탈

군경은 로힝야 주민들의 집을 방화하기 전에 현금과 금장신구 등의 귀중품,[341] 서류,[342] 소와 닭 등의 가축,[343] 식량과 의자,[344] 태양광 패널[345] 등을 약탈해 갔다. 증언에 따르면 약탈은 아침 8시부터 여러시간동안 지속되었다.[346]

> "또한 저는 군경과 불교도들이 마을에서 귀중품들과, 금, 현금, 귀중한 문서 및 기타 비싼 물건들을 약탈한 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모든 집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었습니다."[347]

> "저는 우리의 귀중품을 넣은 상자를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태양열 패널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348]

E. 기초조사 결과

연령	여성	남성	전체
10세 이하	77	92	169
11-19세	54	34	88
20-29세	59	26	85
30-39세	14	14	28
40-49세	20	13	33
50-59세	16	15	31
60세 이상	8	9	17
종합	248	203	451

첫째, 방글라데시 난민캠프 내 뚤라똘리 마을 주민들이 진행한 기초조사 결과, 사망자는 45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여성은 248명(55%), 남성은 203명(45%)이다. 18세 이하 아동은 251명(56%)이며, 이 중 10세이하 아동은 169명으로 전체 37%에 해당한다. 특히 20대 여성의 사망자는 59명(13%)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	전체
10세 이하	136
11-19세	77
20-29세	65
30-39세	28
40-49세	26
50-59세	24
60세 이상	24
종합	380

사망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살인은 123명(오차범위 3.3%)으로 여성 피해자의 50%에 해당한다. 또 총상 살해는 25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6%에 달한다. 그 외 방화 살해는 21명, 강에 던져 (유아)살해는 11명, 구타, 칼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경우 4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명단을 본 보고서에 첨부한다.

둘째, 아디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304명의 텐트대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38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8세이하 아동은 205명으로 전체 사망자수 대비 54%에 해당된다. 이 중 10세이하는 136명, 1세 미만의 영아는 10명이었다.

F. 가해자: 99 라이트 보병사단

증언에 따르면, 2017년 8월30일 뚤라똘리마을에서 작전을 펼쳤던 군대는 녹색 군복에 99 부대마크가 있는 99 라이트 보병사단(99th Light Infantry Division)이다.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은 200명이 넘었다.[349]

> "추정하기로는 200여명의 군경은 99부대마크가 있는 녹색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마어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99사단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런처와 기관총, G3, G4, AK47과 같은 중형화기를 사용했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한 차크라, 무랑, 쿠이족은 모두 100명이 넘었습니다."[350]

나즈물 이슬람(2018년 8월 사망)[351] 은 미얀마 군대에 복무한 몬족 출신 불교도로서 퇴역 후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뚤라똘리 마을에 거주하였는데, 8월30일 이전부터 라카인 마을행정관은 그를 체포하여 행정관 사무실에 구금하였다.[352] 나즈물 이슬람이 사건 당일 목격한 바에 따르면, 99 라이트 보병사단이 작전을 수행했다.[353]

> "99보병사단(Taltma)은 8월30일에 작전을 수행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버마어로 숫자 99라고 적혀있고 붉은 배경에 흰색 별이 있는 심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방글라데시 군대 제복과 비슷한 유니폼을 착용했는데, 그것은 녹색과 혼합색이었습니다. … 그들은 수행중 이름표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름을 볼 수 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99사단의 상징을 보았습니다."[354]

나즈물 이슬람 ©조진섭

위의 증언은 마을행정관 아웅쪄세인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 당일 뚤라똘리에서 작전을 수행한 군대는 99라이트 보병사단이라는 로이터의 보도와 일치한다.[355]

8월30일 뚤라똘리의 라카인마을 일부 주민도 책임이 있다. 아웅쪄세인(Aung Kyaw Sein)은 모임을 소집하여 뚤라똘리 주민들에게 신변의 안전을 보증한다며 군대가 마을에 진입할 경우 도망가지 말고 마을 데져트에 함께 모여있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실제 주민들은 그의 말을 믿고 피난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일부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군대의 지휘아래 움직었다. 증언에 따르면 마을행정관인 아웅쪄세인과 라카인 주민인 우치몽과 몸 마아 틴은 가솔린을 데져트로 옮겼다.[356]

그 외 쿠이족, 므로족, 사크마족 출신의 민간인 50-100여명도 함께 있었다.[357]

> "군경은 우리를 사에드 악보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군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셀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혼합색의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라카인, 샤크마, 쿠이와 므로족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므로족들은 긴 머리로 그리고 샤크마는 그들의 얼굴을 통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358]

물론 뚤라똘리 마을 로힝야 주민을 학살한 미얀마 군대의 고위 지휘관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사령관 민아웅라잉(Min Aung Hlaing)은 로힝야 학살의 주된 책임이 있다. 로힝야 학살이 진행중인 9월1일, "벵갈리(로힝야) 문제는 오랜 지속된 끝나지 않은 업무"이라고 발언했고, 9월19일 시트웨에서 관련 군사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359] 또 서부사령부 소장 마웅마웅소(Maung Maung Soe), 99라이트 보병사단 단장 탄오(Than Oo) 등도 뚤라똘리 마을 학살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360]

VI. 결론과 권고

뚤라똘리 마을의 대량학살은 8월 25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주도한 군사작전 중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군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테러리스트 토벌작전은 구실에 불과했다. 마을에 진입한 군인들은 총을 난사하고 집을 방화했다. 그리고 곧바로 주민들이 숨어있던 강가를 에워싸고 남성을 조준해 사살했다. 어린아이들은 강으로 던져 익사시키고 넙적하고 날이 긴 칼로 살해했다. 강변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들을 밀어넣어 불태웠다. 그리고 여성들을 민가로 데려가 강간하고 머리를 가격하거나 목을 베어 죽인 후 집에 가두어 불을 질렀다. 아침 8시에 시작한 살육은 해질녘까지 계속되었다. 군경은 로힝야 민가에 남아 있던 식량 등 재산을 전부 몰수해갔고 로힝야 집들을 전부 불태웠다.
기초조사를 통해 8월30일 뚤라똘리마을에서 학살된 주민은 최소 380~450명이다. 기초조사의 한계로 인해 결과는 확정적이지 않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더 많은 희생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당시 와이꽁, 디올똘리 등 인근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뚤라똘리에 피신해 있었고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뚤라똘리 학살에 직접적 책임은 악명높은 99 라이트 보병사단에 있다. 라카인 마을행정관을 비롯한 주민들과 쿠이족, 므로족, 샤크마족 등도 학살에 적극 가담 또는 조력했다. 뿐만 아니라 군총사령관을 비롯한 군지휘권자들도 뚤라똘리 학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미얀마 군대와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뚤라똘리 로힝야 주민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인근 마을과 시장 등에 다니기 위해서는 요금을 지불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가능했고 이를 어길 경우 구타와 구금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야했다. 2016년 10월부터는 마을밖을 나가지 못했다. 결혼도 수수료를 내고 허가증을 받아야 가능했으며 이

를 어길 경우 역시나 구타와 최고7년형의 감옥살이 그리고 큰 벌금을 내야 했다. 자녀도 2~3명이상을 낳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다짐을 받았고 실제 자녀를 가족등록부에 등재하는 것에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미얀마 정부는 이들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이슬람을 금지했다. 모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기도와 종교행사를 갖는 것도 금지시켰고 이를 어길 때에는 처벌이 따랐다.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취약했다. 치료를 위해서는 여행허가를 받아야 했고 치료비를 선불로 지급해야 했다. 로힝야들은 교육에서도 차별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문해율이 지나치게 낮다. 직업선택에 차별을 받았다. 정부는 로힝야 소유의 땅을 몰수하여 라카인에게 배분했다. 생계수단을 빼앗긴 로힝야는 다시 땅을 라카인에게 빌려야 했다. 로힝야는 1982년 시민권법 제정이후 시민권이 박탈됐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 그러지 못했다.

집단학살죄는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로, (1)집단구성원의 살해, (2)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3)전부 또는 부분의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 (4)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 등의 행위로 정의된다.[361] 아디는 본 보고서에서 다룬 2012~2016년의 로힝야 파괴와 2017년 8월30일 뚤라똘리 주민들의 학살사건이 전형적인 집단학살죄에 해당하고, 문제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평가한다.

인터뷰에 응한 생존자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정의'의 실현이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아디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미얀마 정부와 군부는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해 효과적이고 철저한, 그리고 공정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정치적,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만 미얀마 정부와 군부는 로힝야의 존재를 불인정하고 집단학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규명노력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본 사안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진상조사는 뚤라똘리 마을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카인 마을 단위에서 발생한 모든 유사한 사건을 포함해야 하며, 로힝야에 대한 파괴가 사회제도적으로 추진된 2012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진상조사는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면책없이 담보해야 한다. 책임자 조사 대상은 미얀마 군총사령관를 비롯한 고위급 군지휘관과 마을단위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99라이트 보병사단, 국경경찰대, 학살에 가담한 소수민족 민간인들까지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또 미얀마 정부의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관과 주요 각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면책특권이 부여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부는 피해자에게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권리구제는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르고 불가피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피해자 구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피해자 및 로힝야 커뮤니티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미얀마 정부는 입법, 행정적 조치를 도입하여 로힝야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및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왜곡된 정보와 혐오를 유발하는 사회지도자와 시민들의 표현을 처벌하여야 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뿌리깊은 혐오와 차별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국적확인카드 제도를 중단하고 로힝야의 시민권 회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미얀마 정부와 국제사회는 로힝야의 송환 논의에서 로힝야 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VII. 부록

Name	Age
Ab duraman	26
Abdogokar	7
Abdullah	7
Abduraman	4
Abeda khatun	50
Abeya Khatun	60
Abu Ahmed	20
Abu Ahmod	45
Abul Foyes	10
AbulLuson	35
Abushoma	90
Ageda	5
Ali Ahammed	50
Ali Ahammed	50
Almas Khatu	45
Amena	25
Amime Khalu	40
Amina Katu	27
Amina Khatun	40
Aminakhatun	53
AminaKhatun	45
Aminakhatun	45
Amir Khatun	70
Anaturaman	11
Anous	2
Anowar	15
Anu wars	20
Anuwara Begum	23
Ar khatun	45
Ar khatun	45
ArfaBg	25
Arfat	8
Arfat	2
Arfen Gumsdut	5
Arkan Ulla	5
Arkanullah	2
Arofa	32
As Motara	3
As Motara	3
As safa	5
Aseya Bg	25
Aseya Bg	25
Aseya Bi Bi	10
Asiya	12
Asma bibi	7m
Astafa	6
Asu bibi	2
Azad Huson	25
Azida	25
Azir Rahaman	17
Azizur Rahaman	22
Azizur Rahman	26
Azizuraman	20
Baalawa Bg	6

Name	Age
Balla	27
Begum	13
Bollar Hosen	28
Bosor Alom	14
Daw Lu	17
Didar	15
Dil Mahammod	35
Dil Mammed	11
Dil Neyes	18
Dildara Bg	19
Dill Dadus	13
Doll	50
Dolu	60
Dolu	50
Dolu	20
Edires	52
Eman Hossain	60
Esemal	10
Esemal	3
Esmil	3
Ezar Huson	27
Faisal	12
Faiysal	10
Farasa Jonnot	2
Farija Khatun(	60
Fatama	3
Fatama Khatun	35
Fatama Khatun	20
Fatamakhatu	8
Fatamakhatun	18
Fatamakhutu	21
Fatema	45
Fatema bibi	2m
Fatema khatun	35
Fatema Khatun	30
Fatema Khatun	24
Fayaza Bg	10m
Fisal	5
Fored Alam	23
Foreja khatun	50
Foriz Alom	40
Formin	13
Forrozu Kamal	12
Fur khan	14
Gofor Alom	4
HabezuEsalam	8
Hala Mia	80
Halesa	1
Halidakhatu	12
Halimakatu	60
Hamid Huson	27
Hamida	45
Hamida	20
Hamit Husin	25

Name	Age
Hamit Husin	35
Hasen Bg	12
Hasena	1m
Hasena	13
Hasim Ali	55
Hasina khatun	30
Hef zuraman	14
Hosona Begum	10
Humai Ra	3
Humolhason	7
Ismail	9
Ismile	9
Ismuda Bg	16
Jahanu	40
Jalaila Khatun	45
Jamal	20
Jamal	16
Jamal Leda	19
Jamialida Moudl	7
Jannat Tara	7
Jomilo Begum	4
Jonnat Tara	20
Jonot Ara	12
Jonotullah	18
Jonotullah	8
Kamal Hosen	55
khuirulAmen.	35
Kismottara	5
Kismottara	5
Kosara	1
Koshetalam	7
Koteza	25
Koteza Bg	40
kotiza	20
Kotiza Bg	35
Laila Begum	28
Laila bibi	2
LailaBg	20
LaLa	7
Lalu	55
Lalu	55
MabeyaKatu	10
Mabiya	12
Mabiya Khatun	50
Mabuza Katy	70
Madakhatu Brithing	75
Madullah	1
Majida	19
Majuma	10
Manjuma	2
Mari Khetu	50
Matiyen Khatu	30
Mayanakhatu	60
Md Ayoub	27

Name	Age
Md Taheer	17
Md Wares	65
Md Amin	40
Md Amin	25
Md Amin	25
Md Anas	3
Md Ayas	15
Md Ediris	23
Md Enus	18
Md Esimal	5
Md FaRuk	4
Md Fisal	4
Md Hosson	21
Md Husson	3
Md Ismeil	12
Md Kobir	18
Md Kyasal	2
Md Md Tuhil	6
md Naseer	18
Md Osman	16
Md Osman	11
Md Osman	11
Md Osman	6
Md Osman	2
Md Razaw wan	10
md Rezewan	10
Md Rezuwan	13
Md Rofik	30
Md Sadak	6
Md Sadik	5
Md Sadik	3
Md Shofik	14
Md Sobowan	5
Md yakhon	1m
Md Zuby	14
Md. Shofik	12
Md. Sofaid	3
Md. Taster	1
MdEdires	45
Menara	8
Menara	18
Mg Zu Alom	3
Minara	19
Minara Begum	35
Minara Begum	14
Mobbis	45
Mon Juraman	1
Mono Wara	25
Monsur Ali	40
Montas	20
Montaz Begum	6
Monu wara	21
Monuwara Bg	35
Moriyankhatu	60

Name	Age
Muku Roma	3
Murijan	18
Mustukema	3m
Muttobis	30
Nasaroudin	8
Nojumulla	4
Nor Islam	1
NorAyesha	32
NorHabiba	1
NorHalima	6m
NorHusson	65
Noyeama	2
Nur Agar	50
Nur Begum	21
Nur Bg	25
Nur Fatama	25
Nur Hussain	65
Nur Kesa	6
Nur Mohamed	55
Nur Mohammod	25
Nur Shome	2
Nur Solema	4
Nurankis	19
NurAyesha	50
Nurayesha	55
Nurbahar	22
NurHalima	15
Nurkada	16
NurKamal	14
Nuru Lamin.	30
Nururamin	1
Ole Ahmmed	60
Osman	30
Osman	27
Osman	25
Osman	4
Rabeya	40
Rabeya Bg	50
Rabiya Khatun	35
Rabiyakhatu	60
Ramad Ullah	43
Ramakhatun	25
Rana Bg	14
Rehema khatn	15
Rehena	18
Rezu wan	10
Rizewen	7
Robeya Basor	25
Robiulla	7
Rofeya	18
Rofika	19
Rofika	17
Rofika	4
Rofika	2

Name	Age
Rofiqe	15
Rofiquie	18
Rogeya Bg	17
Rohima khatu	45
Rokiya	90
Rokiyas	75
Roksara	10
Romeda	8
Romida	23
Romida	17
Romida	15
Romida Begum	12
Romida Bg	19
Rooks	8
Roqyie	10
Rosheda	50
Roshid Ahmed	40
Roshid Ahmed	18
Roshida	30
RoshidaBg	23
RoshidAmed	35
Roshit Ammd	20
Rowjeya	15
RozinaAkter	7
Roziya	6
Roziya	4
Rubena	5
Sabbir Ahmed	50
Sabir Ahamed	45
Safula	11
Sahina	10
sammaras	75
Sanuwara	25
Sara khatu	35
Sara Khatun	18
Sarakatu	17
Satara	12
Sayeda khatun	60
Sayedakatu	40
Saytara	7
Semag khatu	35
Senoara	10
Senu Wara	25
Setara Bg	20
Sha Heda BiB	3
Shabi Ullah	7
Shafil Eslam	10
Shahan	8
shajida	16
Shakira Bi Bi	8
Shanu	8
Shobbir Ahammed	60
Shobbir Ahmmed	51
Shobi Amed	7

Name	Age
Shobik	27
Shofika	2
Shofikuraman	13
Shoheda	1
Shohida	10
Shohida	7
Shohit	3
Shokotara	1m
Shokotara	1m
Shomina	12
Shomsheda	16
Shor Banu	37
ShoreHuson	35
Showhida	1
Showkutara	7
Showm shida	33
Shufara	11
Sliltam	60
Sodul Lok	19
Sodulamin	8
Sofora	40
Soitabbar	55
Solem	20
Solim	20
Solim	10
Solimoullah	3
Somaya BiBi	4
Somsheda Begum	40
Somya	3
Soyad korem	35
SoyadKorim	22
Soyedul Hoque	18
Soyodnur	10
Su Su ma	3
Sufai Ra	20
Sufira	6
Sultan	60
Sumaiya	3m
Sumya Begum	2
Sura khatu	22
Sura Khatun	25
Tasminara	33
ToFara	8
Tosminara	25
Tuhera Begum	9
U Mor Mia	50
Yasen	4
Yasir	2
Yesmina Ra	5
Zabu Ham	6
Zadula	3
ZaforAlom	18
Zamal Hosan	20
Zamal Huson	22

Name	Age
Zamali	17
Zamalida	20

미주

1. Reuters, At least 32 killed in Myanmar as Rohingya insurgents stage major attack, CNBC, 25 August 2017, https://www.cnbc.com/2017/08/25/at-least-32-killed-in-myanmar-as-rohingya-insurgents-stage-major-attack.html.
2. ISCG, Situation Report Rohingya Refugee Crisis, 27 September 2018,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iscg_situation_report_27_sept_2018.pdf.
3. Oliver Holmes, Massacre at Tula Toli: Rohingya recall horror of Myanmar army attack, The Guardian, 7 September 201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sep/07/massacre-at-tula-toli-rohingya-villagers-recall-horror-of-myanmar-army-attack.
4. Human Rights Watch, Massacre by the River: Burmese Army Crimes against Humanity in Tula Toli, 19 December 2017, https://www.hrw.org/report/2017/12/19/massacre-river/burmese-army-crimes-against-humanity-tula-toli.
5. Weiyi Cai and Simon Scarr, The Rohingya Crisis: Burned to the Ground, Reuters Graphics, 31 December 2017, http://fingfx.thomsonreuters.com/gfx/rngs/MYANMAR-ROHINGYA/010060630DW/index.html.
6. 아디는 12월부터 6주간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뚤라똘리 마을 출신의 185 생존가족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생존피해자의 텐트를 직접 방문하여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소개, 연계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조사 결과, 사망희생자로 970명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기초조사는 '방글라데시로 넘어오기 전 미얀마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을 하나의 가족단위로 정의하였는데, 실제 뚤라똘리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던 이들은 난민캠프에는 소가족단위로 생활하고 있고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일한 가족의 사망희생자를 중복 집계했다. 참조: 아디, 뚤라똘리의 비극, 로힝야인권실태보고서, 2018. 2.
7. ISCG, map ID_0216, 26 February 2018,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sites/www.humanitarianresponse.info/files/documents/files/20180226_cox_bazar_reference_map_with_pop_ukhia_id00216_0.pdf.
8. Id.
9. Affidavit - Tulatoli - Case Number TT24. Hereinafter, TT24. The same rule applies in numbering all subsequent cases.
10. TT08.
11. TT17, TT38, TT50.
12. TT17, TT24, TT29, TT32, TT38, & TT50.
13. TT17, TT29.
14. TT15, TT17.
15. TT50.
16. TT30.
17. TT60.
18. TT09.
19. TT30.
20. TT10.
21. TT46.
22. TT41, TT42, TT44, TT50, TT52, & TT53.
23. TT41.
24. TT44.
25. TT18, TT41, TT48, TT52.
26. TT48.
27. TT29.
28. TT35, TT46.
29. TT24.
30. TT41.
31. TT41.
32. TT06, TT10, TT18, TT22, TT24, TT28, TT34, TT35, TT37, TT41, TT44, TT48.
33. TT06, TT10, TT18, TT22, TT24, TT28, TT35, TT37, TT41.
34. TT22, TT37.
35. TT28.
36. TT24.
37. TT03, TT06, TT52.
38. TT24, TT34.
39. TT06, TT24.
40. TT05, TT25, TT38.
41. TT52.
42. TT24, TT34, TT44, TT46, TT48.
43. TT34.
44. TT46.
45. TT48.
46. TT03.
47. TT33.
48. TT08, TT33, TT41.
49. TT20.
50. TT36.
51. TT36.
52. TT18, TT33, TT35.
53. TT35.
54. TT03, TT12, TT14, TT18, TT19, TT20, TT22, TT27, TT28, TT33, TT34, TT36, TT41, TT48, TT52, TT53.
55. TT48.
56. TT03.
57. TT20, TT22, TT48.
58. TT22.
59. TT22.

60. TT20.
61. TT18.
62. T58.
63. TT51.
64. TT06, TT15, TT17, TT22, TT42.
65. TT06, TT15, TT17.
66. TT22.
67. TT41, TT53.
68. TT08, TT12, TT14, TT27, TT28, TT33, TT36, TT44, TT41, TT48, TT52, TT53, TT60.
69. TT27, TT28, TT33, TT41, TT53.
70. TT14, TT36, TT52.
71. TT41.
72. T28.
73. TT48.
74. TT34.
75. TT41.
76. TT34.
77. TT24.
78. TT28.
79. TT06, TT19, TT22, TT24, TT28, TT29, TT37, TT39, TT53.
80. TT06, TT22.
81. TT39, TT53.
82. TT06.
83. TT22.
84. TT19.
85. TT13.
86. TT03, TT13, TT18, TT26, TT33, TT37, TT41, TT49.
87. TT06.
88. TT06.
89. TT24.
90. TT50.
91. TT60, TT62.
92. TT06, TT22, TT26, TT33, TT34, TT41, TT42, TT50, TT51, TT53, TT62.
93. TT06.
94. TT06, TT24, TT26, TT34, TT51, TT55.
95. TT51.
96. TT34.
97. TT41, TT49.
98. TT41.
99. TT25, TT31, TT44, TT53, TT61.
100. TT53.
101. TT25, TT31, TT44, TT47, TT61.
102. TT03, TT22, TT25, TT31, TT44, TT47, TT61, TT66.
103. TT22, TT44, TT47.
104. TT03, TT22, TT31.
105. TT03, TT22, TT25, TT31, TT44, TT47, TT61, TT66.
106. TT25.
107. TT47.
108. TT01—TT73.
109. TT01—TT73.
110. TT61.
111. TT03.
112. TT22.
113. TT01, TT26.
114. TT26.
115. TT01, TT25, TT31, TT38, TT62.
116. TT26.
117. TT22.
118. TT22, TT28.
119. TT22, TT28.
120. TT24.
121. TT13.
122. TT15.
123. TT15.
124. TT65.
125. TT24, TT28, TT44.
126. TT18.
127. TT42.
128. TT44.
129. TT44.
130. TT44.
131. TT44.
132. TT30.
133. TT15.
134. See supranote 4.
135. TT50, TT53.
136. TT50, TT53.
137. TT50, TT53.
138. TT03.
139. TT42.
140. TT03.
141. TT07, TT26, TT50, TT53.
142. TT26.
143. TT07.
144. TT31.
145. TT62.
146. TT58.
147. TT58.
148. TT58.
149. TT62.
150. TT58.
151. Affidavit - Done Paik - Case Number 01 (Hereinafter, DP01. The same applies to the subsequent cases from Diyaltoli.), DP04, DP05, DP06, DP08, DP09, DP10.
152. DP01, DP07, DP10.
153. DP01, DP03, DP07, DP10.
154. DP07, DP10.
155. DP07.
156. DP01—DP20.
157. Affidavit - Whykhong - Case Number 12 (Hereinafter, WK12. The same applies to the subsequent cases from Diyaltoli.).
158. WK01, WK02, WK04, WK06, WK07, WK09, WK13, WK14, WK16.
159. WK02, WK03, WK09, WK15.
160. WK04, WK08.
161. WK02, WK03, WK04, WK07, WK08, WK12,

WK14.
162. WK02, WK05, WK07, WK08.
163. WK03, WK05, WK06, WK07, WK09, WK12, WK13, WK14, WK15.
164. WK08, WK14.
165. WK09.
166. WK02, WK16.
167. WK02, WK05, WK09, WK12, WK13, WK16.
168. WK01—WK16.
169. WK02, WK05, WK08, WK09, WK14.
170. WK05.
171. WK08.
172. WK02, WK09.
173. WK13.
174. WK13.
175. WK02, WK03, WK08, WK09, WK12.
176. WK02, WK08, WK09.
177. WK12.
178. WK03.
179. Affidavit - Diyaltoli - Case Number 05 (Hereinafter, DT05. The same applies to the subsequent cases from Diyaltoli.), DT05, DT07, DT08.
180. DT01, DT02, DT03, DT04, DT05, DT06, DT09, DT10, DT12, DT13, DT14, DT15.
181. DT09.
182. DT09.
183. DT02. DT03. DT07. DT08. DT09. DT10. DT12. DT13. DT14. DT15.
184. DT01. DT02. DT03. DT04. DT05. DT07. DT08. DT09. DT10. DT12. DT13. DT14. DT15.
185. DT14.
186. DT15.
187. DT03.
188. DT07.
189. DT01, DT04, DT05, DT06, DT08, DT09, DT10, DT12.
190. DT06.
191. DT01, DT02, DT03, DT04, DT08, DT09, DT10, DT12, DT13, DT14, DT15.
192. DT03, DT09, DT15.
193. DT03.
194. DT03.
195. DT01, DT02, DT03, DT04, DT05, DT07, DT09, DT10, DT15.
196. DT01, DT02, DT08, DT09, DT10.
197. DT03, DT04, DT06, DT14, DT15.
198. DT05, DT06.
199. DT04.
200. DT05.
201. DT05, DT06, DT09.
202. DT04, DT05, DT06.
203. DT10.
204. TT27, TT51
205. DT04, DT05, DT06.
206. TT02, TT03.
207. ADI Focus Group Interview 20180601.
208. Id.
209. Id.
210. Id.
211. Id.
212. Id.
213. ADI Focus Group Interview 20180602.
214. Id.
215. Id.
216. Id.
217. Id.
218. TT49.
219. TT06, TT14, TT26, TT58.
220. TT06.
221. TT14.
222. TT10.
223. TT12.
224. TT01—TT73.
225. Id.
226. Id.
227. TT48.
228. TT20, TT28, TT48.
229. TT12, TT24, TT59.
230. TT12.
231. ADI Interview No. 20180208.
232. ADI Interview No. 20180209.
233. TT20, TT29, TT51.
234. TT20, TT29, TT51.
235. TT28.
236. TT20, TT29, TT51.
237. TT24.
238. TT20, TT29, TT51.
239. TT29.
240. TT20.
241. TT20, TT51.
242. TT06.
243. TT06, TT10, TT25.
244. TT03.
245. TT56.
246. TT10.
247. TT10.
248. TT25.
249. TT29.
250. TT29.
251. TT56.
252. TT59.
253. TT35, TT27, TT51.
254. TT27, TT51.
255. TT19.
256. TT56, TT59.
257. TT36.
258. TT20.
259. TT20.
260. TT03, TT04, TT15, TT51.
261. TT03.
262. TT16.
263. TT02.
264. TT44.

265. TT04.
266. TT02.
267. TT02.
268. TT04.
269. TT49, TT50.
270. TT49.
271. TT59.
272. TT53.
273. TT53.
274. TT09, TT15, TT50.
275. TT49.
276. TT56.
277. TT56.
278. TT63.
279. TT56.
280. TT49.
281. TT14.
282. TT16.
283. TT16.
284. TT07.
285. TT24.
286. TT14.
287. TT50.
288. TT52.
289. ADI Interview No. 20171001.
290. ADI Interview No. 20171002.
291. ADI Interview No. 20171003.
292. Id.
293. Id.
294. TT14.
295. TT32.
296. TT33.
297. TT48, TT63.
298. TT48.
299. TT19.
300. TT45, TT53.
301. TT48.
302. TT48.
303. TT14.
304. TT20.
305. TT20.
306. TT14.
307. TT20.
308. TT02, TT04, TT14, TT16, TT20, TT48, TT50, TT61.
309. TT02.
310. TT20.
311. TT02.
312. TT20.
313. TT20.
314. TT20.
315. TT16, TT48, TT50.
316. TT48.
317. TT50.
318. TT16.
319. TT16.
320. TT16, TT20.
321. TT16.
322. TT20.
323. TT20.
324. TT20.
325. TT16, TT48, TT50.
326. TT16, TT48, TT50.
327. TT14.
328. TT16.
329. TT20.
330. TT02, TT04, TT14.
331. TT14.
332. TT61.
333. TT50.
334. TT47.
335. TT63.
336. TT19.
337. TT19.
338. TT16, TT20.
339. TT20.
340. TT16.
341. TT47, TT67.
342. TT67.
343. TT61.
344. TT59
345. TT25.
346. TT18.
347. TT67.
348. TT25.
349. TT43.
350. TT48.
351. Patrick Brown, Witness to a massacre: the former Myanmar soldier who saw his village bur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feb/05/witness-massacre-tula-toli-rohingya-myanmar-soldier-village.
352. TT43.
353. TT43.
354. TT43.
355. Simon Lewis, Zeba Siddiqui, Clare Baldwin and Andrew R.C. Marshall, Tip of the Spear, Reuters Investigates, https://www.reuters.com/investigates/special-report/myanmar-rohingya-battalions/
356. TT53.
357. TT14, TT33.
358. TT14.
359. Simon Lewis, Zeba Siddiqui, Clare Baldwin and Andrew R.C. Marshall, Tip of the Spear, Reuters Investigates, https://www.reuters.com/investigates/special-report/myanmar-rohingya-battalions/
360. Id.
361.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article 2; Rome Statutue, article 6.

Ⅷ. 감사의 말

본 보고서는 많은 단체의 지원과 개인들의 노고로 제작되었습니다.

우선 아디의 로힝야 인권기록 사업을 지원하는 광주 인권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진실의 힘, 한우추모기금에게 존경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발간에 실무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김솔아님, 정지원님, 강희원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진찍는 조진섭님은 로힝야 캠프에 아디와 동거동락하며 인권기록을 해왔고 본 보고서에 사진과 편집으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감사드립니다.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2018년 열약한 여건속에서도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증거수집해 오신 여섯분의 기록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떠올리기조차 두려울 8월30일의 기억을 나누어 주신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계신 뚤라똘리 마을 로힝야 주민들에게 위로와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